

미국의 번영은 건국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 교육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그 정치는 회개에 쓰인(In God We Trust) 그 정신을 보여서 분명히 아니다. 미국을 지는 문화 정체 분야에 그리스도 정신을 가르치는 책임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승리와 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라사대 그련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누가복음 20장 25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7월 12일 (토) 제 1491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오바마케어 타격...종교적 신념이 우선!

CT, 연방대법원 '피임약 보험적용' 위헌판결로 계류 100소송에 유리한 판결 예상 보도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에 또 한번의 일격을 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오바마케어에서 기업주들에게 피임 등 임신조절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Hobby Lobby's vs. HHS).

연방대법원은 보수파 5명과 진보파 4명으로 팽팽하게 엇갈린 결정으로 업주들의 손을 들어주고 오바마케어에는 다시 한번 타격을 가했다. 다시 말해서, 보수파 대법관 5명은 정부가 기업고용주에게 피임 등 임신 조절 비용까지 보험에서 커버해주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1만5천명의 직원을 두고 41개 주에서 6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수공예품 판매 체인인 하

비 로비사와 다른 업체 (Conestoga Wood Specialties)가 2년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한마디로 1993년에 제정된 '종교자유회복법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of 1993))'을 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이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이번 소송의 배경과 함께 휘튼 대학을 비롯한 100여개 기독교적 이념을 가진 비영리단체들의 유사한 소송에 유리하게 이번 판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What's Next? How Hobby Lobby Affects Wheaton College and Nearly 100 Other Cases: Wheaton College, six other organizations get temporary relief; 100 cases likely to be affected).

거나 운영하는 기업주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100여건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백악관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여성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따라서 피임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불리한 대법원 판결을 받은 미국 정부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바로 미국 정부의 대안 중 하나는, 보건 당국이나 직장보원이 먼저 피임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 방법이다. 나머지 하나는 보건 당국의 역할을 확대해 여성들에게 무료로 피임약을 제공하는 것인데,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기업주가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피임약에 대한 보험 적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가족이 경영하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 기업주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피임약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에도 기독교계 대학(휘튼) 요청으로 내린 법원 명령에서 대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피임약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반대하면 정부의 서식을 면제해 줄 수 있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3면으로 계속)



연방대법원의 '피임약 보험적용' 위헌판결은 오바마의 지지율 추락에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상고심에서 기업의 편을 들어준 보수 진영의 앨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기업의 종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을 소유하



"정서적 성숙 없이 영적 성숙은 없다"

뉴라이프펠로우십교회, 피터 스카지로 목사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만들기 원리 소개

목회자이자 인기 강사인 스카지로 목사(Peter Scarzzero)는 2003년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을 집필해 2004년 미국 복음주의출판협의회(ECPA) 골드메달리언을 수상했다. 그는 1987년 9월 뉴욕 퀸즈에 "뉴라이프펠로우십교회(www.lifefellowship.org)"를 설립했으며, 그의 교회에는 현재 55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온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다. 그는 고든 콘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스턴침례신학교에서 "결혼과 가족"이란 주제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건강한 감정과 영성 센터"를 그의 아내와 공동으로 설립하여 함께 사역하고 있다.

스카지로 목사가 담임하는 뉴라이프펠로우십교회는 매년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컨퍼런스(Emotionally Healthy Church Conference)'를 열어, 감성을 통한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지만 정서적으로 셋막이인 다음과 같은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 방어적이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줄 모르는 사람
-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이들에게서 위협을 느끼거나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 교회 일에는 정성을 다하면서 홀로 남은 배우자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사람
- 제 한 몸도 주체하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느라' 분주한 사람
-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 나서기보다 도망치고 숨어 버리는 사람

따라서 어떻게 하면 정서적으로 아직까지도 갓난아기와 같은 교인들을 정서적으로 건강한 어른들로 구성된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이다.

항상 피터 스카지로 목사는 '영적 성숙과 정서적 성숙과의 관계'를 목회현장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경험들을 중심으로 컨퍼런스를 이끌어간다.

그는 "그동안 교회가 성경공부나 제자 훈련과 같은 영성 훈련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정서적인 문제들에 대해 너무 등한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한 개인의 정서가 자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인들과의 관계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함께 연결시켜 설명해준다.

(3면으로 계속)



2면

미 대형교회 주축은 젊은 세대



3면

원로칼림 박종순 목사(총신교회 원로)



7면

아브라함 카이페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 원장)



16면

세계 종교문화뉴스

남북 통일을 위한 백두산

통일기도회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는 8.15를 맞으며 남북 통일을 위한 백두산 통일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원인 남북 통일은 조국 대한민국의 영원한 통일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바램입니다. 우리는 먼 이역에서 통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으나 이번에 북한의 접경지역에서 특별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여 백두산에서 갖는 통일 기도회에 해외 동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4년 8월 11일(월)-14일(목) 까지

모집인원 : 40명(한국 국내 20명,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20명 으로 제한)

경비 : 1인당 한화1,200,000원(한국-중국 왕복 요금 포함) 그리고 US \$1,200.00(미국-한국 왕복표는 포함되지 않음)

신청 : 서기 송병기목사(917-559-8877, 미국)

회계 박영진장로(516-650-6332, 516-551-4552, 미국)

마감 : 7월 21일(월)까지(해외 한인들에 한하여)

※ 해외 동포들은 꼭 중국 비자를 받아야 함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



시론

인사 청문회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인사 청문회는 3권 분권이 엄격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업무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행사하는 공적인사권을 국회가 견제하는 제도로, 후보자를 의회에 출석시켜 질의? 답변하고 진술 등을 듣는 절차이다. 미국은 인사청문회제도를 운영한지 200여년 정도 되었지만, 한국은 불과 14년 정도로, 지난 2000년 2월에 국회법 개정으로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및 인사 청문회 규정을 신설하여 청문회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가 국회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내에 국회 본회의의 표결

에 회부,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임명동의안에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학력, 경력사항, 병역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에서는 3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기도 전에 자진사퇴하는 불상사가 생겼다. 그들 모두 한때는 존경받는 이들로 만인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전 관여, 친일사관 논란으로 모두 자신과 가족들까지 만신창이가 된 채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자진사퇴하였다. 그들 모두 개인이나 가정관리를 잘하지 못한 불찰도 있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적지 않지만, 사실은 인사 청문회제도의 근본취지가 조금씩 훼손되어가고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따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보다는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공세, 과도한 신상털기를 통한 망신주기, 사생활을 유린하고,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명예를 훼손시키며, 인격살인에 가까운 공영방송사와 정치인들의 추한 정치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언론들도 후보들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정하게 보도해야 함에도 전후를 자세히 확인해보지도 않고 난도질만 하는 행태도 근절되어야 한다. 아무리 폭로성 기사라도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균형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과거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던 후보자들은 청문회도 하기 전에 별집처럼 만들어 평생 쌓아올린 명예를 실추시켜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물론 후보자들 모두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어 청문회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인격과 도덕성, 옹골은 삶, 자질과 능력까지 겸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한 목사를 높이는 청문회 위원들과 모든 국회의원들도 한 사람씩 청문회에 세운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제약적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여 독주하지 못하게 하고 좋은 후보를 천거해주는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후보자의 명예에도 존중하며 품격 있는 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여 국격을 높여가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은 일꾼을 세워 일하게 해야 한다.

또한, 신문 방송을 통해서만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도 정확한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판단을 자제해야 되는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흥분하여 무지비한 댓글을 달아 인격살인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물리적 행위를 하는 행태도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인 공직자들은 이런 청문회의 과정을 거울 삼아 교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자 한다면 항상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인으로 삼길 기회가 왔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의 참 모습을 보여주며 국가를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을 받되 애국에서 존경받는 총리로 일했던 요셉처럼, 바벨론에서 존경받는 총리로 오래도록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다니엘과 같은 공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창41:38,41),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단6:4).

오늘의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이다. 언제 어느 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게 될 기회가 올지 누가 알겠는가? 나아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평생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직분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 이웃을 섬겼는지를 심판주이신 주님께 보고할 때도 오게 될 것이다. 그날이 유구무언의 날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로부터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는 선고를 받지 않도록,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을지를 생각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미 대형교회 주축은 젊은 세대

리더십네트워크, “온전한 제자 만들기가 관건” 설문 결과 밝혀

“부머세대들(1946-1964)이 사라지면, 교회 역시 쇠퇴한다”는 명제는 공공연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모든 정황들이나 증거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리더십네트워크(leadnet.org)에서 해마다 조사하는 ‘2014 미국대형교회 현황’에서 드러났다.

리더십네트워크의 설문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워렌 버드 박사는 저명한 사회학자 스캇 터마(Scott Thumma)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놀랍게도 45세 미만의 젊은 층들이 대형교회에 출석하고 있어, 대형교회의 미래가 그다지 비관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Not a Boomer Phenomenon - Megachurches Draw Twice as Many Under 45).

이번 설문은 교인 수가 2천 명 이상인 교회를 대형교회(megachurch)로 상정하고, - 조사를 진행한 워렌 버드 박사는 이 같은 교인 수에 따른 규모를 제외한 대형교회의 가장 큰 공통점으로 대부분이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하고 있으며, 교인들 스스로 ‘복음주의자(evangelical)’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이 설립된 지 10년 이하 채 되지 않았으며, 설립목회자가 여전히 담임목회자로 재직 중이라는 점이다. 전체 중 설립된 지 20년이 넘는 교회는 21%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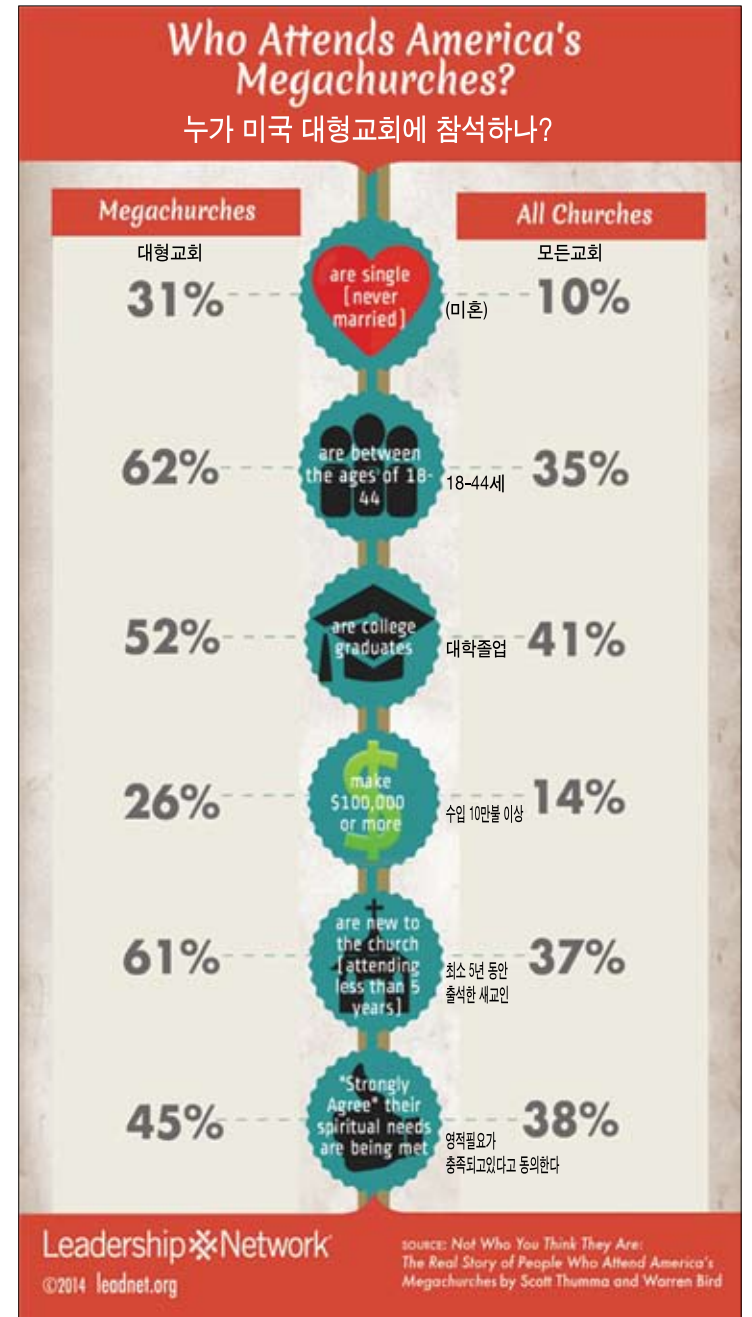
미국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들의 평균 연령은 55세이고, 최근에는 40세 이하의 젊은 목회자들이 담임을 맡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버드 박사는 젊은 목

고 결혼을 한 교인들보다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젊은 성인들이 30% 이상으로, 비대형교회에서 싱글 장년들이 10% 미만인 것에 비하면 3배 이상이다. 비대형교회에서는 결혼을 했거나 과부인 경우가 거의 80% 이상을 웃돌고 있다. 결국 대형교회에 다니고 있는 싱글 성인의 연령대는 18-44세로,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연령대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점에 비하면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형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거의 과반수의 싱글들은 교회에 다니는 지 2년 안팎으로, 그나마 이들 중 20%만이 교회를 다니는 지 6년 이상으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져야 할 사역이다.

더욱 더 흥미로운 사실은 바



대형교회 대부분 설립된 지 10년, 담임목사가 설립자 평균 40세 미만, 미혼 30%, 집중적 체계적 양육 이뤄져야

회자들이 이끄는 대형교회들은 보다 덜 보수적이고, 탈 전통적인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가 칼 렌츠가 목사가 이끄는 뉴욕 헬싱교회로, 이 교회는 렌츠 목사의 자유분방한 옷차림과 파티를 하는 듯 한 예배 형식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따라서 대형교회일수록 젊은 세대 즉 평균 40세 미만의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설문의 주요 발견 내용이다.

현재 비대형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의 평균 연령은 53세이지만 거의 2/3 이상의 대형교회들에서는 45세 미만의 교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

로 이러한 미혼 출석교인들 거의 학생들로 대형교회에 방문했다가, 교회에 정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60% 이상이 한번 방문한 대형교회에 그대로 남는 반면에, 비대형교회에서는 40%만이 남고 있다.

결국 현재 미국에서 주류교단들이 교세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형교회들은 견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젊은 세대들이 성경적인 메시지와 프로그램 사역의 핵심으로 운영하는 대형교회에 남

아, 다가오는 미래에 교회의 근간이 될 수 있고, 이들을 얼마만 큰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온전하게 구비

하는 교회만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결론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 서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8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 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특별 장학혜택 을 드립니다.

본교 소개

-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입니다.
-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1993년 제정 '종교자유회복법' 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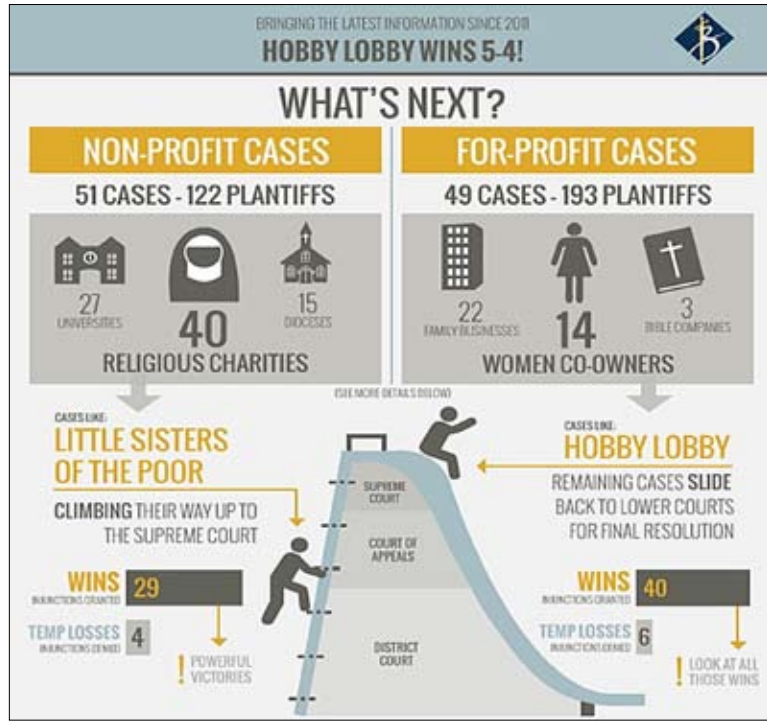
CT, 연방대법원 '피임약 보험적용' 위헌판결로 계류 100소송에 유리한 판결 예상 보도

(1면에서 계속)

반면, 오바마케어 제도를 반대하며 폐지까지 추진해온 공화당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오하이오)은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쪽에는 큰 승리"라면서도 "반복적으로 헌법이 정한 선을 넘는 오바마 행정부에는 또 하나의 패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조직이나 단체도 종교적 이유를 내세워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허핑턴 포스트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판결의 영향이 오바마케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다른 법률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적 전례가



를 다시 물고 온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뿐 아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법원이 오바마에게 결정타를 먹었다. "오바마케어 일부 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오바마케어 내용 중 피임관련 의료보험(피임문제까지 가입자에 부담시키는 문제) 조항이 문제가 됐다. 특히 기독교 기업인 '하비로비'가 이 문제를 헌법소원으로까지 끌고 갔고 대법원은 오바마를 외면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간 오바마케어 비용부담을 꺼려왔던 중소기업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환호하고 나섰다. 미국 중소기업의 90%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반기고 있다.

이외에도 NBC보도에 의하면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감사의 노래

만취상태에서 잠을 깨는 사람들은 눈을 뜨는 순간 냉수를 찾는다고 한다. 애연가들은 눈을 뜨자마자 담뱃갑과 라이터를 찾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잠자리에 누운 채 조건반사를 깨닫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아침은 기도로 시작된다. 눈을 뜨는 순간 나는 감사의 기도를 맨 먼저 드린다. 그 기도의 내용은 지난밤을 평안케 하셨음과 사치, 오장육부, 이목구비의 정상적 활동과 그리고 찬란한 태양빛으로 시작되는 그 날 하루의 삶과 조건들을 감사드리곤 한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일상적인, 그래서 어쩌도 경험했고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갈 그 사건들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대부분 우리의 감사는 결과론적 일 때가 많다. 다시 말하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때 다발을 손에 쥐고, 합격통지서를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회전의자를 돌리면서 감사를 드리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분히 조건적이며 반사적 감사에 불과하다.

엄격하게 말하면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의 구속과 그 은총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큰 물줄기인 것이다. 구약의 경우는 대체로 감사가 제사행위로 표현되곤 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물방적 제사가 요구되곤 했다. 다시 말하면 감사 제사는 반드시 물방이 포함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제사는 그 기본 자세가 감사와 감격으로 단장되어야 했다.

예를 들면 찬양은 입술로 드린다. 그러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는 신령한 마음이 제외된다면 그것은 가요나 가무일 뿐 찬양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구약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제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제사의 대상이다. 바로 이 점이 조상 제사와 다른 점이다. 우리네 전통 제사의 대상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격적 존재

일 수 없고, 인격적 교감의 성립도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조상 제사의 근거를 성경 제사에 두고 합리화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수시로 받는 상담 요청 중에 빈소나 무덤에서 절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질문들이 많다. 그 행위를 막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유는 절을 받는 대상이 인격적 존재인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40년 동안 내가 사는 집 뜰 안에서 서 있는 나무라고 해서 거기에 절을 하는 사람은 없다.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을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감사의 대상 설정도 예외가 아니다. 흔히 풍년을 구가하는 풍년제의 경우는 감사와 제사의 대상이 해와 달과 그리고 자연이다. 그러나 해와 달과 비와 이슬을 작기에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

우리 시대는 감사 부재와 실종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고도의 갈등과 긴장이 우리 시대를 점령하고 있는 가하면 반목과 미움으로 치장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감사가 없다.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제사는 스승의 가르침에 대하여, 백성은 국가의 큰 울타리에 대하여, 교인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

외국어가 서툰 어떤 여행자가 세계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단 두 마디의 적절한 구사로 비교적 순조로운 여행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두 마디란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였다.

교회는 감사 공동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시인의 노래는 천국 시민의 의무가 무엇임을 밝혀준다. 이른 아침 눈을 뜨면서 부는 노래, 일상성 속에서 부는 노래,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불러야 할 노래, 그것은 감사의 노래들이다.

기업주가 종교적 이유로 직원건강보험 적용대상서 제외 백악관, 대법원 결정에 "여성 건강권 침해" 즉각 반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5대 4로 우세한 대법원의 색깔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은 존 로버츠, 새뮤얼 알리토, 클라렌스 토머스, 안토니 스칼리아, 안소니 케네디 등이다. 루스 긴스버그와 스티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4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긴스버그, 소토마요르, 케이건 등 여성 대법관 3명이 모두 진보

파로 꼽히는 점도 눈에 띈다.

미국 대법원이 피임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결정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으로, 이번 판례가 시사하는 것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내 우의환'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밖으로는 이라크 사태가 그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고 안으로는 공화당의 득세 속에 조기 레

임덕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오바마케어'가 벼랑끝 위기를 맞고 있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라크 사태 종결을 최대 치적으로 삼았지만 최근 이라크 사태가 다시 불거지면서 그의 지지율이 급기야 41%까지 추락했다. 이는 그의 정치 생애를 통틀어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그가 부임이후 '이라크 사태'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서둘러 종결한 것이 최근 이라크 내전 상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올해 이민법 개정은 없다"고 천명한 것도 오바마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서 최근 오바마의 지지율 추락과 함께 일부 언론에선 "이제 오바마 반대편에 있는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진보 정책 우선 드라이브로 정국을 운영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입지가 주목받고 있다.

"정서적 성숙 없이 영적 성숙은 없다"

(1면에서 계속)

'정서적 성숙이 없는 영적 성숙은 없다'는 그의 주장은 아주 강력

하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이 이수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보이는 삶의 모습이나 갈등과 위기 앞에서, 또한 분노와 상실의 사건 앞에서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관찰하며, 이를 관리하므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성경의 내용을 배워 이해하는 수준

영적 훈련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인들에게 정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숙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전 교인들에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감하는 대화법을 가르치고 훈련한다거나, 분노 다루기와 갈등 해결법, 상실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극복하는 법 등을 가르치고 훈련하므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다.

결국 영적 탈진에 시달리는 교회에 정서적 계기관을 장착함으로써, 교인들을 신앙 세계의 새로운 경지로 올려서는 동기부여를 스카지로 목사는 뉴라이프펠로우십교회를 통해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서로의 감정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감하는 대화법 훈련 분노 다루기와 갈등해결법, 상실의 바른 이해와 극복하는 법 교육

하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 추구하는 '영적 성숙'은 궁극적으로 삶 속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정서적 성숙'의 열매로 나타나야

와 절제'라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제사 훈련 과목들을 아무리 많

이 아무리 높아졌다 하더라도 영적 성숙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지로 목사는

담임목사 청빙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나누기를 갈망하며 2세 교육을 잘 감당하고자하는 가든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요/건

1. 현재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교단소속 목사 또는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는 개혁 교단 소속 목사
2. 정규 신학 대학원(M.Div.) 졸업하고 목사 안수 후 5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
3. 40세 이상(기혼) 되신 분
4. 캐나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캐나다 영주권/ 워킹퍼미트 소지하신 분
5. 신원조회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처

청빙위원장 : 조준상 장로 (416-505-0079)
 서류 보내실 주소 : Attn to John Cho
 1993 Leslie St., Toronto, On Canada M3B 2M3
 이메일 보낼곳 : newconcept@c21toronto.com

제/출/마/감 2014년 8월 15일까지

- 모든 제출서류는 한/영으로 기입되어야 합니다.
- 원본을 포함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1.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첨부 - 목사/사모) 1부
2. 자기소개서(성정배경, 앞으로 2세 교육에 대한 Vision 포함, Letter 용지 3매 이내)
3. 목회계획서(목회 철학, 비전과 계획, Letter 용지 5매 이내)
4. 목사 안수 증명서
5. 대학(B.A) 및 신학대학원(M.Div.) 졸업증명서 1부
6. 현재 소속 교단확인서 및 증명할 공증 사본 1부
7. 설교 동영상 2편(구약 1편/신약 1편)
8. 추천서 2통
9. 소속 교회 최근 주보 또는 요람 1부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가든교회 청빙위원회 일동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기독교 박해자(6)-셉티미우스 세베루스

로마제국의 전성기는 5현제인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끝으로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콰모두스는 한 마디로 역량 미달의 왕이었다. 그가 암살당한 후 명망 있는 장군 출신이자 집정관이었던 페르티나스가 황제에 올랐다. 그는 군비지출이 지나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려다가 반발한 군부에 의해 암살을 당했고 그 후 황제가 다섯 번이나 바뀌는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때 해석처럼 나타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로마제국의 20번째 황제 셉티미우스 세베루스(Septimius Severus 191-211)다. 그는 특히 하계도 북아프리카 출신이다. 보통 북아프리카는 얼굴이 까무잡잡한 베르베르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거스틴 역시 베르베르족이다. 그는 현재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의 근교인 렵티스 마그나에에서 탄생했

다. 이곳은 기원전 3세기에 해상 무역으로 위력을 떨쳤던 곳이다. 한니발로 하여금 코카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진격하여 간담을 서늘케 했던 나라였다. 후에 로마에 편입되었지만.

세베루스는 북아프리카의 문화를 따라 마술, 미신을 연구했고 꿈을 해석했고 점성술에 능했다. 그러기에 태생적으로 기독교와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첫 부인이 죽은 후 두 번째 부인을 점성술에 의지하여 얻었다. 그녀는 에메사(Emesa, 시리아의 안디옥교회 부근) 출신으로 태양신인 바알을 섬기는 엘가발 사원 대제사장의 딸이었다. 그녀는 세베루스와 결혼하여 두 아들 카라칼라와 게타를 낳았다.

그녀는 황제에게 로마의 전통적 종교를 일으켜 국가를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을 무력화시키라고 권했다. 당시는 정치적으로 불안했다. 북쪽에서는 게르만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고 자신은 군대의 후원을 받아 황제가 되었기에 군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는 군대의 봉급을 과격적으로 인상함으로 일시적 지지를 받았지만 그것은 그에게 하나의 큰 울무가 되었다. 이유는 국가의 재정은 풍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탈리아인과 원로원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원로원 41명을 처형했고 그들의 가족과 하인들까지 죽였으니 얼마나 보복에 대한 불안한 삶을 평생 살아야 했을까 싶다.

황제는 왕후의 조언을 듣고 로마 전 지역에 태양신 바알을 섬기도록 명령했다. 태양신을 지존의 신으로 세운 후 다른 모든 신들을 그 산하에 두어 종교적 통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친정에서부터 태양신을 섬겨온 왕후의 계략이었다. 마치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과 같다. 이런 역사를 보면 개인이나 왕에게도 아내의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왕은 종교인들을 힘으로 제압했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유대교와 기독교를 혹독하게 탄압했다. 황제는 두 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더 이상 신

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령을 공포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예금과 북아프리카에서의 탄압은 극심했다. 초대교회를 연구한 프렌드 교수에 의하면 히폴리투스(Hippolytus 170-236)의 기록을 예로 들어 말하기를 로마, 알렉산드리아, 칼타고, 고린도, 안디옥 등지에서 화형, 참수형, 태형 등의 박해가 일어났고 이런 박해는 그 후에 일어나게 될 공적 박해의 전조였다고 했다.

그들은 정한 날(주일)을 기다려 예배장소로 들어가 사람들을 체포하였고 그들에게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했다. 이를 거부할 때 재판관 앞으로 데려가 황제의 칙령을 범한 죄목으로 정죄한 후에 가차 없이 처형했다. 이때에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Origenes)의 아버지 레오디데스와 여러 사람들이 순교 당했다. 페루페투스의 순교를 기록한 터틀리안은 203년 기독교에 입교한 많은 초신자들이 교사들과 함께 죽어야 했다. 기독교사의 위대한 지도자 안디

옥의 클레멘트가 순교를 당했고 오리겐과 이레네오 역시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터틀리안은 의분이 일어나 기독교를 옹호하는 변증문을 썼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독교인들에 관용을 베풀어줄 것을 황제에게 간청했다. 황제는 60세가 지났는데도 갈레도니아(현재의 스코틀랜드)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했고 거기서 죽었다.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

“나는 원로원의원도 해보았고, 변호사도 했다. 대대장이나 집정관도 역임했고 장군도 경험했다. 국가요직을 두루 거쳤고 황제도 해보았다. 나는 주어진 임무들을 충실하게 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모두가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 인생은 모름지기 헛된 것일 뿐이다.” 그 사실을 진작 깨달았다면 무모한 탄압은 하지 않았을 것을... 당신도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진실을 쫓아 살아야 한다.

푸/른/초/장

이훈우 목사
(아르헨티나 중앙교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 이전에는 많은 양의 비유와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두 비유가 회개경험을 촉구하는 것이라면 탕자의 비유는 이방인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 그리고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하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당시 유대사회 유산은 형은 동생의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은 부모가 죽은 이후에 받게 되므로, 후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유산을 분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소유권과 처분권, 관할권이 모두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부모가 생전에 있음에도 유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패역한 아들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을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을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

역하여 우리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고 패역한 아

들에게 내리는 벌과 자녀와 자식의 예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비추어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파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자의 모습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청중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가지고 탕진한 아들을 살인자로 취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약 400백만 명에 이르고 있었고 그들은 민족주의자들로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였습니다. 자신

의 선민사상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로 이루어진 사회였지만 결국 이 탕자는 자신의 공동체인 유대인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자의 취급을 당하고 아주 천하게 여기는 돼지우리에서 주염매를 먹

는 그 세상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알았지만 아들이 세상을 경험하도록 내보냈습니다. 돼지우리 같은 세상을 경험하도록 손을 놔주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집나간 아들이 하루 속히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날마다 산등성이에서 아들의 모습을 찾고 있었습니

다. 그토록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던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보자 집을 떠나 그 아들이란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까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어서 아들에게도 달려갑니다.

우리는 모두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내며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에게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돌아오라고 손짓하시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온 아들, 다시 찾은 아버지

(눅15:11-24)

본문 17절에서 비로써 탕자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천히 여기는 돼지, 그 돼지의 먹이를 주워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도 재해석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마치 돼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마치 돼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떠나온 집을 그리워합니다. 이젠 아들로서가 아닌 아버지 집의 종으로서의 삶을 산다 해도 아버지

가 계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족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족의 품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라도 살고 프다는 간절함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의 보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탕자의 아버지 모습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으로 보낸 것입니다. 아들은 그토록 세상을 원하여 재산을 갖고 떠났습니다. 아버

를 보내고 더러운 아들의 모습을 아랑곳 하지 않고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아들이 그 동네 세상 사람들 눈에 뜨인다면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이 저 멀리서 나타나자 단숨에 달려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들을 향해 외칩니다. “이제는 내 아들이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아직도 탕자의 모습이 남아 있어 늘 주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이 끌리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은 빠르지만 합니다. 이런 우리들이기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은 어는 새 달려와 주님 품에 우리를 안아 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앙교회는 그동안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상처가 깊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들이 다 아물지 않았지만 부족한 저는 “온 성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품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내며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에게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돌아오라고 손짓하시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아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본교 소개 및 특전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2014 가을학기 수업 안내

Sept 29-Oct 3(9월 29 -10 월3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6-10 (10월 6-10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 / 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 디자인)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Off-Campus Courses

Sydney, Australia

• July 28-August 1 (7월 28일-8월 1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 Dr. Bruce Dipple

Los Angeles, California

• Sept 8-12 (9월 8일-12일)
IM 830 Islam/ Dr. Daniel Lute

Phnom Penh, Cambodia

• Oct 27-31(10월 27일-31일)

Seoul, Korea

• Nov 3-7(11월 3일-7일)
IM 830 Islam/ Dr. Todd Bradley

Online Courses (8주간 온라인 강의)

Aug 18-Oct 10 (8월 18일-10월 10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Oct 13-Dec 5 (10월 13일-12월 5일)

DI 8520 World Religions(세계종교)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우리 주변에도 무슬림들이 부쩍 많아졌다. 우리의 눈에 비치는 무슬림은 어떠한가? 그들은 공황이나 어느 검색대에서도든지 주목을 받는다. 우리 눈에 비치는 무슬림들은 과격한 테러리스트, 일부 다처주의자, 여성을 핍박하는 인권유린자들로 연상된다. 반대로 무슬림의 눈에 비치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살아온 짧은 세월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세계는 지각변동을 하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또한 종교적 신념의 대립은 갈수록

다고 위협하는 서방교육을 약하다고 주장하는 보코하람의 악한 테러로부터, 시리아와 이라크 내부의 군사적인 힘으로 장악하려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반군들, 무슬림 형제단의 이집트 콕트교회 공격,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폭력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들이 기독교를 보는 시선은 어떠한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아랍권은 오트만 제국의 멸망과 함께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국과 서방세계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전

20%에서 이제는 1%로 줄게 되었다. 사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과 웨스트뱅크는 이제 사라지기 바로 전 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많은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과 무슬림들의 양쪽의 공격 가운데서 살수 없어서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

컬럼비아대학의 정치역사학자인 Rashid Khalidi는 중동전문가이다. 그는 그의 저서 Resurrecting Empire에서 얼마 전까지 중동에는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동안 변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불평한 감정 심지어는 적개심이 표출되고 있다. 물론 미국인들과 미국정부의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구별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곱지 않은 시

특히 Cragg은 무슬림을 처음 만날 때에 신뢰관계를 형성하기까지 신학적 교리적 판단과 차이에 대한 강조를 유보하고, 토론과 판단은 신뢰가 생긴 후에 하라고 권한다.

둘째로, 배타적 패러다임The exclusivist paradigm이다. 이는 대부분의 교회역사 속에서 받아들였다. 현대에는 많은 복음주의 또는 개혁주의 성도들이 갖는 입장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원에 유일한 조건으로 믿는 것이다. 그런데 Charles Kimbell은 그의 저서 Striving Together에서 이러한 접근도 역시 대화가 다른 종교에 대한 예민성을 가질 수 있음을 주장했다. 대립적 적대적 태도를 갖는 Jerry Falwell, Pat Robertson, 그리고 Franklin Graham 같은 사람도 있다. 반면에 복음주의자 중에는 Brother Andrew 같은 사람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



무슬림들의 시선, 우리의 시선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룩 첨예해 되었다. 특별히 이슬람권이 오일머니로 재정적인 힘을 얻으면서 그들의 부를 기초로 한 적극적인 이슬람 부흥을 위한 급진적인 포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무슬림들이 관심을 갖는 '이슬람 부흥'은 이슬람 세계관과 교리 전 세계적으로 문화를 바꾸고, 정치시스템을 바꾸고, 그리고 개인적인 윤리를 바꾸고, 이슬람 세계관을 전파하고 구현시키는 것이다. 이들은 조직적이고 무섭기까지 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아랍권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모로코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동하고, 북쪽으로 유럽을 공략하고, 서쪽으로는 스페인과 미국, 동쪽으로는 아시아의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이슬람주의자들은 그들의 정치체제나 생활양식이나 서방세계의 물질주의 그리고 성적 혼란 등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는다. 과격하고도 엄격한 법을 시행한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많은 서방세계의 악을 기독교와 연결시키고 또한 기독교를 향한 적대심도 숨김없이 표출하고 있다.

이슬람권 나라 안에 있는 교회들이 공격을 당하고 서방과 기독교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향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나이저리아의 여자 중학생 200여명을 납치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겠

쟁들에서도 참패를 계속했다. 특별히 그들이 세 번째 성지로 주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자리 옆에 있는 the Dome of the Rock과 그들의 Al-Aqsa 관리에도 실패했다. 아랍권은 지난 수세기 동안 정치적 경제적 실패를 경험했다. 결전전쟁,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기독교의 공격으로 보기도 한다. 아랍권은 시민들의 권리 행사나 평균수입, 교육, 사회봉사, 기술, 민주주의 참여, 심지어는 나라와 개인의 안전까지 개발도상국보다 더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시민봉기 운동인 아랍의 봄 자스민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부패한 정치권력을 추방하는 것은 좋지만 더 과격한 이슬람주의자들이 들어서는 위험이 있다. 그나마 기독교나 서방세계에 우호적인 얼마 안되는 나라들은 부패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이슬람주의자들의 혁명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문제는 이슬람권 특히 중동의 교회들이 사라져간다는 것이다. 터키는 극소수의 성도들이 남았다. 동부 터키지역의 아르메니아인과 시리아 정통교회 성도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소수의 나이든 사람들이 텅 빈 수도원과 교회를 돌보고 있다. 또한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이 1900년대 초에는 인구의

선으로 기독교인들을 보는 무슬림들을 어떻게 대하나? 우리가 중동과 이슬람 세계를 향해서 감수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다.

Charles Kimbell은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감수성이 있어야 하지만 타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우리가 다원주의 세상을 대하는 데에는 3가지 패러다임이 있다. 1)inclusivism, 2)exclusivism 3) pluralism이다.

첫째로, 포용적 패러다임The inclusivist paradigm이다. 주로 동방교회, 로마케톨릭, 그리고 주류 개신교의 태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더 넓은 은혜에 대한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에 대한 판단이나 정죄를 유보한다. 더 나아가서 제2 바티칸선언은 그리스도도 모른다고 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양심이 따라 진실하게 행동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입장은 복음에 대한 타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감수성이 다. Kenneth Cragg이나 Charles Kimbell은 판단의 유보suspension of judgment를 제안한다.

Brother Andrew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굳이 말하자면 '열린 배타적 접근The open exclusivist paradigm'이라고 할까. 그는 자신의 경험을 Light Force: A Stirring Account of the Church Caught in the Middle East Crossfire에서 나눈다. Brother Andrew는 원래 소련과 중국에 성경을 밀수하여 복음을 증거한 God's Smuggler라는 그의 책에서 영혼구원의 열정을 보여준 사람이다. 그는 이슬람권 교회들에 대한 부담을 가졌다. 그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혹은 하마스 같은 극단주의적 무슬림과 만남을 마다하지 않았다. 웨스트뱅크의 이슬람 저항운동과도 만났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슬림들을 사랑하도록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전도지를 남기고 성경을 남기고 무슬림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알게 했다고 말했다. 1993년 이스라엘이 가자지역에서 하마스 지도자 4백명을 추방하고 산에 남겨 두었을 때에 그는 음식과 담요와 성경을 가지고 갔다. '원수들의 친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신뢰를 쌓은 결과 놀랍게도 이슬람지도자들은 그를 이슬람 대학과 모임에서 강의하고 복음을 소개할 수 있게 허락했다.

(10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그리스도인은 마5:13-14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 많이 하는데 저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금과 빛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사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토랜스에서 권 집사

A: 마5:13에서 유의해야 할 단어는 "세상"이란 단어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란 것은 이웃과 세계와 열방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사란 것은 내 자신에게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 점점 확산되고 점점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태평양의 조그마한 이쁨도 없는 나라요 과거 36년간의 일본의 침략과 통치를 받으며 엄청난 고난을 겪은 민족이었으나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어둠에 빛이 비취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금은 IT산업에 일인자가 되어 삼성, LG가 세계시장에서 독주대로 판을 치고 있고 현대 기아차가 전 세계에, 우리가 사는 남가주 프리웨이에도 흔하게 볼 수 있어 자긍심을 느끼게 합니다.

과거에는 선교를 받은 나라였으나 이제 미국다음으로 선교사를 세계에 많이 파송하여 한국선교사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에 북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처럼 드러내는 삶

을 나누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것은 나 자신만 유익만을 위한 내 개인주의가 되어서는 안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을 나누어주며 이웃을 섬기는 이타주의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교회도 장차 부흥, 성장하여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오늘은 이 지역사회와 내일은 열방을 향해 쓰임받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어떻게 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이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형태가 완전히 없어져야 소금이 맛을 낼 수 있고 썩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소금은 자기 구실을 못합니다. 아주 완전히 녹아 없어져 분해되어야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가정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살고 내 자존심이 살고 내 험기가 살아 있으면 우리의 가정은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소금이 아니니까요? 녹지 않고 그대로 굴러가는 소금은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 소금처럼 녹아지고 희생해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과는 달리 빛의 역할은 정반대로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빛은 감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밑 아래 두지 말고 등경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등경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보통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창문은 대개 예루살렘 쪽으로 내어서 창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었습니다. 대개 창문은 아주 높이 달려 있어 해만 지면 온 집안이 깜깜하기에 저녁에는 불을 켜서 높은 곳에 등경을 만들어 불을 켜서 온 방안을 환히 비추게 했습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려면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는 사람들 중에 성경책 들고 가는 것이 창피해서 그런지 신문지에 싸서 들고 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멋있게 기도하고 식사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숨길 때 은밀히 어둠과 타협하여 죄를 짓기 쉽습니다.

유년부 전도사님 청빙

Seeking Sunday school JDSN

- 자격: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분
2세나 영어에 능숙하신 분
(Fluent in English)
- 봉사: Sunday only (주일 1번)
- 급료: 능력에 따라 우대함
- 문의: 310)749-0577
*주위에 좋은 분이 계시면 추천을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이정현 목사
3521 Lomita Bl#202-A
Torrance CA.90505



담임목사 청빙

미국 동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주도 콜럼비아에 위치한 콜럼비아 한인 연합 장로교회 (PCUSA)는 39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30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함께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MIF#: 23308.AB0)

자격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PCUSA 교단 소속 또는 가입이 가능하신 분 • 정규 신학 대학원 이상 (M. Div.) •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 이중언어(한/영)에 불편이 없으신 분 • 이민 목회 경력 7년 이상 (부목사 경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이력서 1부 (사진 포함) • PCUSA PIF 양식 (pcusa.org) • 본인 및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포함) • 목회비전, 소견서 및 신앙고백서 • 신학교 졸업증명서 • 목사안수 증명서 • 추천서 3명 • 최근 6개월 설교 동영상 2편 (CD/DVD 또는 동영상 주소)
제출	<p>*제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해드리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1차 선정대상자에게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마감: 2014년 8월 11일 • 보내실곳: 우편: P.O Box 24113 Columbia SC 29224 Email: yhcchang@gmail.com 	

문의: 청빙위원장 장영학 장로 (704)491-8044 Email: yhcchang@gmail.com

콜럼비아한인연합장로교회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1412 Richland St. Columbia, SC 29201 Tel (803) 765-2500 www.kepcsc.org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르키나파소의 도고시에(Doghosie)



부르키나파소의 도고시에 족은 부르키나파소 불타 강 발원지에 사는 로비-알라족과 문화적 유사 종족이다. 이들 종족들은 삶의 모습, 종교적 신념, 역사 그리고 지형적 배경 등에 있어 거의 흡사하다. 단지 도고시에족은 Gur어 계통의 Gan-Dogose어인인인 도고시에어(Dorhosye)로 불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도고시에족은 이전에 블랙불타 강 동쪽, 가나에 거주했던 작은 종족이다. 그러나 18세기부터 강을 가로질러 부르키나파소 남중부 현재의 거주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더 나은 농지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마 침입자들의 잦은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강 유역에 거주하는 다른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도고시에족 역시 요새처럼 지어진 컴파운드에 사는데 진흙이나 흙으로 편평한 지붕과 두껍고 높은 벽들이 있는 장방형의 요새들을 짓는다. 도고시에족은 침입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독화살을 사용하기도 한다.

삶의 모습

도고시에족은 원래 넉넉한 농지를 찾아 지속적으로 이주하는 농부들이다. 그들은 사탕수수, 수수, 조뿐만 아니라 양, 호박 콩, 고추 그리고 다량의 쌀 등을 재배하며 수확의 일부, 특별히 수수발효음료(sorghum beer)를 시장에 내다팔기도 한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소, 양, 염소 그리고 닭 등의 가축을 사육한다. 근래에는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남부 가나나 토크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

농장에서는 남자들이 대부분의 들일을 감당하며 여인들은 파종과 추수를 돕는다. 여자들은 집에 딸린 채소밭을 가꾸고 숲속 부산물들을 쫓거나 빨감을 모으고 물을 길는 일을 하며, 가족의 끼니를 준비

하고 맥주를 만든다. 집 짓는 일은 남녀가 함께 하는 일이다.

도고시에족은 몇 개의 컴파운드로 구성된 촌락들에 산다. 이 거주지들은 가족의 농지 확보와 가족 사육을 위해 거리를 두고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다 큰 숲속 농장들은 거주지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어머니들은 어린이를 돌보며 아이가 걸을 때까지 모유 수유를 한다. 걸을 수 있을 만큼 자란 아이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고 합당한 장례 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손위 누이들은 걷기 시작한 동생들을 돌봐준다. 어린 여자아이들은 주로 컴파운드 주위에서 노는데 때로는 물을 길거나 곡물을 빻는 일로 어머니를 돕기도 하며 남자 아이들은 아버지를 도와 가족 때 돌보는 일을 돕는다.

이전에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자 결혼이 완전히 성립된 것으로 간주

됐으며 그 때까지 남편과 아내는 함께 살지 않았다. 오늘날 도고시에족 가운데 일부는 이러한 전통적인 결혼 관습을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 남녀들은 서로 눈이 맞으면 집을 나와 곧바로 남자의 집에서 부부로 함께 지낸다. 남녀가 결혼하면 컴파운드에는 새 신방이 꾸며지고 취사를 위한 아궁이들이 곁에서 준비된다.

가내 신전에는 연중 다양한 의식들이 개최된다. 예를 들면 농사철의 막바지에는 춤을 추며 풍년을 축하한다. 가족들 가운데 출생, 결혼 그리고 장례 등과 연관된 의식들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식은 은밀한 사회의 일원이 되는 성년식을 중심으로 거행되는 것들이다.

신앙

대부분의 도고시에족은 그들의 전통적인 "정령숭배적" 신앙을 따

르는데 이는 무생물들에게도 영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들은 타계한 조상들의 영과 더불어 자연의 기본 요소들의 영들을 함께 신봉하는데, 그들의 조상들은 집안의 대소사를 굽어 살피는 한편, 땅은 그들의 공동체를 보호하며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고 믿는다. 오늘날 도고시에족의 10% 가량이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단지 5% 정도다.

필요로 하는 것들

2개의 선교단체들이 도고시에족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으나 그들의 언어로 제작된 전도용 자료는 전무하다. 보다 효과적으로 도고시에족 공동체를 복음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노력의 증대, 더 많은 일꾼들, 기독교방송국 그리고 전도용 문서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인 57% "종교가 오늘날 문제에 답 줄 수 있다"

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종교에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최근 성인 10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종교가 오늘날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종교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은 30%였으며, 13%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성별과 연령, 정치 성향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진보파를 제외하고는 응답자 다수가 '종교가 현대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같이 답변한 비율은 남성(52%)보다 여성(62%)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48%로 가장 낮았고, 65세 이상이 62%로 가장 높았다. 보수에서는 72%, 중도파에서는 58%였다. 반면 진보파의 경우 36%만 '종교가 현대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고, 49%는 '종교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응답했다.

갤럽은 "미국인 다수는 여전히 종교가 오늘날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아직까지 종교적 국가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종교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은 조사가 시작된 1957년 82%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당시 '종교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갤럽은 "종교가 문제의 답을 줄 수 있다"는 응답은 75년 60%대로 떨어진 뒤 2000년대까지 줄곧 그 수준을 유지했다"며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미 교회가 초대형 은퇴센터 건립

미국 오순절교단의 한 대형교회가 초대형 노인 복지시설 건립에 나선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6일 보도

했다.

테네시주 매디슨의 코너스톤교회는 약 1500만 달러(151억원)를 투입해 일반 축구 경기장의 20배 크기인 16만1874㎡의 부지에 기독교 은퇴 센터를 내달 착공한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 문을 열 센터에는 노인 주거시설뿐 아니라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도 마련된다.

매디슨은 테네시주에서 노인 비율이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다나 로슨 교회 자금관리 이사는 "지역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며 "신앙이 없는 주민들에게도 센터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너스톤교회는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용 대부분을 현금으로 마련했으며 일부는 일반 투자 형태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센터 착공에 대해 교회가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회는 저소득층을 위한 어린이 학교와 같은 미래 세대 사역도 벌이고 있다.

1983년 가정예배에서 시작한 코너스톤교회는 현재 매주 3600여명이 출석한다. 미 오순절교단 '하나님의 성회(Assembly of God)' 소속이다.

중국, 터무니없는 이유로 목사에 징역 12년

중국, "공공질서 무너뜨렸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목사에 징역 12년 기사의 사진 중국 정부가 승인한 교회의 한 목사에 대해 법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중국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허난성 난런현 인민법원은 지난 4일 "군중을 모아 공공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장 사오지에(48·사진) 기독교 목사에 징역 12년과 벌금 10만 위안(약 1627만원)을 선고했다고 AP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장 목사는 지난해 11월 교회 부지를 탈취하려는 지역 관료들에 맞서 싸우다 교인 23명과 함께 체포됐다. 인민법원은 중국 당국의 반기독교 정서를 염두에 두고 이번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장 목사의 변호인 장시운은 "당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에 위협을 느껴 이를 탄압하려는 것"이라며 "장 목사는 억울한 일을 당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등 난리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 기독교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의 밥 후 회장은 "이번 판결은 중국이 무고한 교계 지도자들에게 조작된 혐의를 씌워 종교적 박해를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영문 중국뉴스사이트 차이나포스트는 "장 목사는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소속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며 "중국이 승인한 교회와 목사를 탄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중국 인권변호사 리우웨이구오도 "실형 당국이 주장하는 혐의가 그에게 있더라도 이런 중형이 내려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독일 통일 불씨 지핀 튀러 목사 소천

독일 통일의 기폭제가 된 '평화기도회'를 이끌었던 크리스티안 튀러 목사가 지난 30일(현지시간) 7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튀러 목사는 평소 얄던 폐질환이 악화돼 최근 집중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1982년 9월부터 매주 월요일 옛 동독의 라이프치히 성니콜라이교회에서 '평화기도회'를 갖기 시작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점차 늘어났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로 나서 공산독재정권의 타도를 외쳤다. 이는 89년 수만명이 참가한 '동독 월요일'로 이어졌고 동독의 독재자 에리히 호네커가 이에 굴복해 물러났다. 그해 11월9일에는 마침내 베를린장벽마저 무너졌다.

튀러 목사는 "월요일 시위는 독일 역사상 폭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유일한 혁명이었다"며 "이것은 곧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다. 그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5주년이 되는 올해 '독일 국민 대상(German National Prize)'을 수상했다. 지난달 16일 베를린에서 시상식이 열렸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유가족에 보낸 추모 편지에서 "튀러 목사는 기도회와 시위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줬다"고 회고했다. 부르크하르트 옹 라이프치히 시장은 "그는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신념, 그리고 기념비적 용기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장광수 프랑크푸르트비전교회 목사는 페이스북에 "생전 한반도 통일을 보자고 함께 기도해주셨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적었다.

미 버거킹, 동성애자 위한 햄버거 출시

미국 버거킹 매장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프라우드 와퍼(Proud Whopper)'를 선보였다. 이 햄버거 포장지는 동성애자들의 상징인 무지개색이며, '우리의 내면은 모두 같습니다'라는 문구도 있다. 프라우드 와퍼는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판매에 들어갔으며, 유튜브 채널에서 2분짜리 광고 영상도 볼 수 있다.



버거킹 글로벌브랜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페만도 마차도(Fernando Machado) 부회장은 "버거킹이 미국의 동성애 행사를 후원한 것은 처음이다. 이러한 특별한 햄버거를 행사의 일환으로 내놓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프라우드 와퍼' 판매 수익금은 2015년 졸업하게 될 동성애 고등학교들에게 장학금으로 기부될 것이다. 당장 이런 행사를 더 확대할 계획은 없지만, 나중에 더 큰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거킹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첫 번째 기업은 아니다. 앞서 스타벅스 CEO는 "동성애 홍보에 반대하는 사람은 보유 주식을 팔아도 좋다"고 말하고, 최근 시애틀에서 있었던 동성애 행사에서 800스퀘어피트의 대형 동성애 국기를 회사 본부에 걸어놓았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본 교회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위치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소속교회로서 손원배 담임목사님의 은퇴로 아래와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 격: 1. 이민 목회에 비전과 소명을 받은 분으로 영어권과(EM)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분
2. 정규 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M. Div) 혹은 신학석사(Th. M) 이상의 과정을 졸업한 분
3. 목회경력(담임목사 혹은 전임 부목사)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
4. 인정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본교회가 속한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분
5. 미국 거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유한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2. 본인 소개 및 목회 소신서 3. 신학교 졸업 및 목사 안수 증명서 4. 추천서 (2명) 5. 설교 테이프, CD, 혹은 DVD (2개) 6. 본인 및 가족 사진

● 제출서류 마감일: 2014년 8월31일 우체국 소인 까지

● 제출처: 임마누엘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4435 Fortran Drive San Jose, CA 95134

● 문 의: 청빙위원장 이동우 장로 (408) 826-1308, 이메일 pastor@kepc.org

- 기 타: 1.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선정된 분은 개별통지합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장로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www.kepc.org
4435 Fortran Drive San Jose, CA 95134 Tel: 408.263.5100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39)



정 성 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De Heraut지의 발행인 겸 편집 주간

De Heraut는 영어로 The Herald란 말이다. 즉 보도자, 사자(使者)라는 뜻이다. 이 신문은 기독교 주간지로서, 신앙과 정치를 절반씩 다루는 신문이다. 이 신문은 성도들에게 신학적, 교회적,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신문이었다.

1869년에 카이퍼는 언론계에 투신했다. 당시 헤라우트지의 편집장이던 슈바르트(C.Schwartz) 박사가 아브라함 카이퍼를 협동 편집자로 임명했다. 이것이 카이퍼가 50년간 저널리스트 곧 신문인으로 살아가게 된 시초이다. 카이퍼는 정치와, 종교 양방면에 기사를 써 내려갔다. 카이퍼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글을 쓰고 활동했다. 카이퍼의 첫 번째 기사는 그 해 10월 8일자에 실렸는데 그것이 카이퍼의 언론계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 되었고 그 후 죽는 날까지 펜을 놓지 않았다. 카이퍼가 언론에 투신하자 그의 정치적, 사상적 스승인 흐론 반 프린스터와 카이퍼를 추종하는 개혁교회 지도자

들과 성도들은 대 환영을 했다. 카이퍼는 충직한 언론의 옹호자이면서 언론의 힘이 얼마나 큰 것임을 잘 알았다. 그래서 카이퍼는 국민계도와 칼빈주의적 세계관 건설에

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로 제한했다. 헤라우트 협회는 1871년 1월1일에 헤라우트 신문을 매입하고 카이퍼 박사를 대표와 편집장으로 해서 주간지로 계속 발행할

배꼽이다'란 말은 세례 집전 때 쓰는 말이다. 1870년 국가교회 총회는 모더니스트와 흐로닝엔 신학파의 몇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그들은 향후 목사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례를 주거나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말로 세례를 줄 수 있다고 공포했다. 한때 찬란했던 화란 개신교에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카이퍼는 화란 국가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비판과 아울러 정통 신앙의 옹호를 위해서 최전방에 섰다. 이런 신학적 영적 투쟁을 위해서 헤라우트는 가장 적절한 무기였다. 카이퍼의 논설은 곧 바로 그의 연설문이 되었고 그의 연설문이 모아져서 단행본이 나왔다.

수상직 수행하며 헤라우트지에 논설과 평론, 명상록 쏟아내 언론을 개혁주의적 원칙 지렛대로 화란교회 개혁방향 제시

언론의 힘과 역할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1870년 8월25일 편집장인 슈바르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발행인의 부탁으로 그해 말까지 편집장으로 봉사하겠다고 동의했다. 그리고 마지막 신문에 카이퍼는 슈바르츠 박사의 생애와 사역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논설을 실었다.

카이퍼는 신문의 기능과 역할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해 말 헤라우트 협회를 조직했다. 그 협회 회원의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민족의 생명에 대한 기초가 된

것을 결의했다. 신문사의 목적에는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교회와 자유로운 학교를 위해서"라는 슬로건을 걸었다. 이는 카이퍼가 지향하는 사상과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1871년 1월 6일에 새롭게 시작하는 헤라우트지가 카이퍼 박사 주도하에 확장되고 그의 연설과 논설이 매주일 실리고 화란의 국가와 교회 그리고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의 첫 번째 논설은 이러했다.

"아주 오래 전부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어는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없으리 만큼 카이퍼는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잘 감당했다. 카이퍼는 자유주의자들과의 투쟁과 논쟁에서 논리적으로 결코 밀리지 않고, 문제의 핵심과 정곡을 찌르면서 반박해갔다.

카이퍼는 현대주의를 기독교의 신기루(The Realm of Christianity)라고 반박했다. 신기루는 아름답고 매혹적인 환상적이지만 실체가 없는 허구라고 논박했다. 자유주의는 교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와 문화 등 각 영역에 엄청난 인본주의 사상으로 물들게 했다는 것

이 카이퍼의 논지였다. 카이퍼는 신학자요 교수와 정치가로서 항상 책을 읽고 연구하고 사색하며 새벽 2시가 넘도록 연설 원고와 신문사 원고를 써내려갔다. 카이퍼의 뜨거운 열정이 아무도 말할 수 없지만 자신을 혹사했다.

1880년대 카이퍼는 십수년 동안 방대한 종교와 신학저술을 펴냈는데, 이 책들이 모두 헤라우트에 실렸던 논설과 성경 목상자료에서 비롯됐다. 카이퍼는 이 주간지의 대표와 편집장으로 있었다. 그는 이것을 화란의 개혁주의적이며 정통주의적인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 문제에 대해서 개혁주의적인 원칙으로 돌아가는 지렛대로 이용했다. 카이퍼의 입장에서 보면 화란에서 개혁주의적인 신앙고백이 발전되고,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새 시대의 사고방식에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카이퍼는 헤라우트지의 핵심 편집 중에는 논설과 성경 명상자료, 화란교회의 개혁을 자신의 고집 코너로 선정했다. 실은 카이퍼의 명성과 그의 사상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은 역시 헤라우트지에서 매주일 쏟아내는 그의 글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카이퍼는 매스컴에 가장 조명을 받는 신학자요 정치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또한 헤라우트지도 카이퍼라는 걸출한 대인이 있었기에 계속 명성을 얻었고 발전해갔다. 그의 메시지는 항상 창조적인 대다 역동적인 힘이 샘솟도록 하는 독특한 문학적 서술이다.

그의 신학체계나 정치적 이상도, 교회개혁도 결국 대중들에게 이해되고 호흡할 수 있는 쉬운 메시지로 다가갔던 것이다.

카이퍼의 논설은 신문 한 페이지를 매웠다. 오늘 우리 시각에서 보면 사진도 삽화도 없는 그 논설을 누가 읽겠는가 싶지만 카이퍼의 독자들은 그것을 즐겁게 읽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카이퍼는 당시 개혁교회 성도들에게 고차원적이면서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대안을 내놓았다. 카이퍼는 개혁주의적 신앙고백을 사수하면서도 개혁교회가 오늘의 배교적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글을 썼다. 헤라우트지의 독자들은 카이퍼의 생생하고도 수정 같은 맑은 화란어 문체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카이퍼는 그의 글을 통해서 동시대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했다.

카이퍼 박사는 헤라우트지에 매관마다 '명상록'이란 코너에 칼럼을 썼다. 이 명상록은 작은 설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을 대중들이 다가가도록 인도하고 생각게 하는 글이었다. 이 글들은 하도 독특하고 정오하기 곤란한 형식의 작문이었으므로 어떤 이는 이를 '거룩한 신비주의의 노래'(Melodies of Holy Mysticism)라고 말할 정도였다. 카이퍼는 문학가이자 문장가이므로 그의 글을 통해서 독자들이 영적으로 교뎠다. 카이퍼는 이 작품을 그의 생애 가운데 커다란 즐거움이었고 개혁교회 성도들과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게 되었다.

(9면으로 계속)

칼럼 음악목회 (31)

또 하나의 지휘자(2)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유럽이나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오랜 세월 세워왔고 보존해온 교회당들을 보면 구약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서적 또는 신학적인 면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견고하고 엄숙한 분위기와 특별히 어쿠스틱에 아주 섬세하게 설계되고 그 어쿠스틱 시설을 잘 관리 보존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거친 풍랑 속에서 안전했던 노아의 방주처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세속 문화 장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편리함과 무형식주의가 오늘날

교회의 영적흐름을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모든 분야를 다 말할 수는 없고 단지 교회음악분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낳은 문화의 뿌리는 재즈 문화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 발전된 음악이 바로 가스펠 송입니다. 시대적으로 미국인들이 부(황금)를 찾아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로 밀려오던 서부개척시대에, 그들을 향한 복음전파에 앞장섰던 두 사람 무디와 생기에 의해 천막 집회에서 사용되었던 가스펠송들은 재즈문화에 익숙한 미국인들에게 감성적으로 놀라운 복음전도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발전한 미국의 교회음악이 오늘의 CCM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

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본적인 성향이었느냐 아니면 신본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었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음악)가 복음전도를 위한 방책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주의와 무형식주의에 맞추어진 사람에게 아부하는 예배 그리고 교회음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전도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위치에서나 복음을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자기 습관과 버

릇과 성향을 끝까지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실수한 것은 교회성장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어떻게 어떤 성향으로 자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교회가 성장해왔다면 오늘 날처럼 편리주의에서 극단적 개인주의로 무형식주의에서 다신론주의로 빠지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구원에 목적을 두고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만 있다면 이제는 동성연애나 동성결혼까지 허용하는 대책 없는 교회들과 이렇게 타락한 교회를 회피하는 무교회주의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교회음악이 이러한 혼란한 교회문화와 더불어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쿠스틱에 의한 자연 그대로의 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별로 사운드시스템이 필요치 않은 크기의 교회까지도 모두가 사운드시스템을 활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두가 예배음악이 CCM으로 바뀌면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는 장르를 수용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운드시스템도 좋아야 하고 그 시스템을 조정하는 사람도 전문가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미국교회들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르의 음악으로 찬양을 하는데 한국교회와 어떻게 다를까?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여러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운드리더의 전문성이었습니다. 미국교회 사운드리더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았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귀와 음악에 대한 전문성이 CCM찬양을 그렇게 은혜스럽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과 10여명의 경배찬양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가 제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보이스는 보이스대로 악기는 악기대로 서로 방해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앙상블이 아주 잘 이루어져 하나의 음악적인 톤으로 Blending과 Balance

를 거의 완벽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또 하나의 지휘자 음향을 담당할 디렉터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인도자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는 그분의 음성이 좀 더 들리고 찬양 도중 솔로나 중창이 나올 때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부각되고 다른 음악은 반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때로 악기가 리드를 할 때는 마치 콘체르토를 듣는 것처럼 독주 악기가 부각되면서 다른 악기들은 협주를 합니다. 후에 알아보니 음향 담당자가 찬양경배팀과 함께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팀 리더와 협력하여 모든 음악을 디자인하고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예배에 그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음향담당자는 음향에 관한 전문성은 당연한 것이지만 음악에 관한 전문성은 물론 좋은 찬양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열정 또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기독교 이단 대책 세미나

일시: 2014년 7월 24일(목) 오후 7시

장소: 나성 동산교회(담임 한기형 목사)

2525 James Wood Bl., LA, CA 90006

전화: (213)487-3920

강사 이인규 (대림감리교회) 약력

-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연구위원
- 사이비종교피해자연맹 이단상담소장
- 이단상담아카데미 전문강사
- 현대종교 및 교회와 신앙 이단상담자문위원
- 평신도이단대책협의회 대표
- 기독교이단대책협회 전문위원
- 한국기독교이단상담협회 전문위원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원

후원: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크리스천 투데이, 크리스천 헤럴드,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미주 복음방송, 미주 기독교 방송

‘세포’라는 말은 단순함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종의 기원”을 통해 진화론을 세상에 소개했던 다윈 시대에는 더욱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정밀하고, 가장 효율적인 것이 세포다. 생물들은 1개의 세포가 한 생명체인 단세포 생물과 2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인 다세포 생물을 구분할 수 있다. 이제 사람의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능이 좋은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보기로 하자. 가장 먼저 최첨단 성벽과 같은 세포막을 만나게 된다.

세포에 필요한 성분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세포의 내부 환경을 외부와 다르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막은 한 국가의 경계를 둘러싼 최첨단 성벽에 비유할만하다. 그림에서 보듯이 세포막의 기본 구성은 지방에 인(phosphate)이 붙어 있는 두 겹의 인지질(phospholipids) 막이지만

창조과학 칼럼 (195)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4) 세포막-최첨단 성벽

용하여 특수한 성분들만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낸다.
세포막에는 세포 외부에서 오는 신호들을 탐지하는 각종 안테

용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수용체들이 배치되어 있어 동일하게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에 존재하는 세포막을 확장시키고 두 개로 나누어 두 개의 세포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현재 모든 생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막은 사실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 창조 때 기적으로 만들어진 세포막을 확대 재생산한 것일 뿐이다.

두 겹의 인지질 막으로 이루어진 세포막을 지나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에 또 인지질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내부의 다양한 방들이 존재한다. 이 중에는 세포막처럼 두 겹의 인지질 막으로 둘러싸인 다양한 방들-핵,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등-이 있고 한 겹의 인지질 막으로 된 방들-라이소솜, 퍼옥시좀 등-도 있다. 이 방들에는 세포막 안의 세포질과 구별되어 각각 정보처리, 발전소, 물류센터로 그리고 쓰레기 처리, 방역 등의 기능들이 수행되고 있다. 세포막으로 둘러싸인 세포를 보면 지휘자도 없는데 가장 복잡한 곳에서 가장 정밀하게 그리고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요셉의 인생길에 수놓인 하나님의 손길 덕담어

요셉의 구비구비 인생여정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헤아려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인생을 덧입으려 합니다. 비록 편애이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자기편을 들고 감싸주고 예쁜 옷을 입고 최고로 먹여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자라며 무조건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 것으로 사모하게 되는 길잡이가 됩니다.

두 번의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그대로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위에 자신을 굳건히 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깜깜한 절망가운데 빛이 되고 희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정고 주님은 피난처, 구원자, 인도자, 최고의 전지전능 능력자이십니다.

인간 아버지를 믿고 있던 편애의 힘이 오히려 독이 되어 자신을 치는 것을 보며 만나는 극한 상황 속에서 힘을 다해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을 무기삼아 열악한 환경에서 순응하는 순발력의 지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으로 인한 소모전을 즐기고 하나님의 주신 꿈과 그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극심한 기근에 처한 온 근동의 모든 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큰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높은 총리직에 오름으로 이스라엘의 70인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 모래의 수 같은 많은 자손을 불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로의 길을 틔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본인이 받을만한 어려움을 통과하며 좁은 마음의 그릇을 늘어나도록 부단히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받을만한 자격을 만들어주고 칭찬까지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형들과 가장하고 만나며 자신의 혼동되는 마음도 비우고 정리합니다. 어렸을 때 형들에게 밋게 될 수밖에 없었던 눈치 없는 자신을 보며 올라오는 분노를 은혜로 바꾸는 작업을 무수히 했을 것입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는 미움이나 분노는 이미 사라지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사랑만이 자리 잡고 용서를 이루어냈을 것입니다. 여러 억울한 일들을 만나며 절망스런 상황이 폭풍우로 쏟아져 감당할 힘도 바닥이 나고 세상일에 자기 잣대로 흥분할 힘도 같이 바닥을 내고 마음을 비우도록 모양이라도 요셉의 내면의 허세를 다 가져가고 긴긴 외로움 속에 두심으로 가족으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에서 나오는 무궁한 용서와 긍휼의 사람으로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인생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공이 보장입니다. 때로 내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듯하면 조바심하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마귀에 부추기는 소리를 여전히도 민감히 잘도 듣고 곧 넘어져 좌절의 좌절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우리입니다. 요셉의 자리에 서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과 우리 주님의 저들을 만지시며 일하시는 손길을 파스히 만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돌봐주시고 길을 닫기도 여시기도 하는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지혜주시어 동행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 성숙히 자리매김하는 것에 비례해 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구속사역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고 누리시는 당신의 사람이길 간절히 소원하며 저희의 심령을 드립니다. 주를 사모하는 당신의 사람들이 모두가 안정된 심령과 영혼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주님의 신부이기 소원합니다. 심령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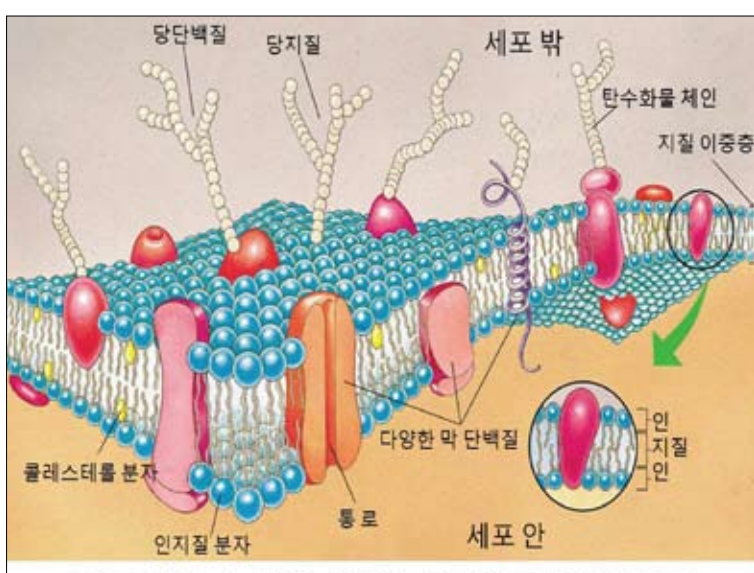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인슐린 수용체 등 여러 호르몬 수용체들 배치, 복잡한 기능 수행 세포도 세포막 못 만들어... 창조 때 만들어진 것 확대 재생산할 뿐

여러 가지 단백질과 당류(sugars)들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거나 조합되어 있다.

두 겹의 인지질 막은 효과적으로 안과 밖을 구분하게 되는데 그것은 인지질 자체의 성질 때문이다. 인이 붙어 있는 쪽은 전하(電荷, electric charge)를 띠어 전기적으로 극성이 강한 물과 잘 어울려 막의 외곽을 향하고, 지질쪽은 물을 싫어하는 부분이라 막의 내부로 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막 안쪽과 바깥쪽이 구분이 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그림). 그 결과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등의 가스는 농도 차이에 따라 자유롭게 통과되고, 물이나 요소나 작은 알코올 분자들처럼 약간의 극성은 있지만 전하가 없는 작은 물질들은 부분적으로 통과하지만 전하를 가진 원자나 큰 분자들은 전혀 통과할 수 없다.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세포가 필요한 것은 보존하고 필요 없는 것은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이런 물질의 출입을 위해 세포는 아주 정밀하고 특수한 문(gate)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는 수소 이온만 혹은 Na+와 K+ 이온만 혹은 Ca++ 이온만 통과시키는 문, 당류만 통과시키는 문, 지방만 통과시키는 문 등 각종 특수하고 정밀한 문들이 있다. 이 문들은 대개 펌프처럼 에너지를 사



창조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세포 막의 구조

나들도 붙어 있다. 예를 들면, 췌장(pancreas)에서 분비된 인슐린은 근육 세포나 간세포 혹은 지방 세포의 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insulin receptor)에만 특이하게 달라붙게 된다. 이 수용체는 세포막을 가로질러 세포 내부로 연결되어 있어 외부 신호가 세포 내부로 전달되게 한다. 그 신호는 세포 구성구적으로 더욱 확대되어 전해져 혈액 중에 있는 당을 세포 안으로 수송하여 혈당을 내려가게 하고 세포가 필요한 각종 재료나 에너지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세포막에는 인슐린 수

세포막의 각 성분들은 목적 없이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없다. 예를 들면, 혈액형 A형과 O형의 차이는 세포막의 단백질에 붙어 있는 지극히 작은 당(sugar) 분자 한 개 즉 원자 몇 개가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세포가 얼마나 정밀하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는 한 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밀하고 복잡한 기능을 가진 온전한 세포막은 아직까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세포 자신도 그 세포막을 만들지 못한다.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모든 것이 자동화 되어있고 최적화 되어있다. 사람이 만든 어떤 시스템보다 정교한 작품이다. 이런 놀라운 세포들을 연구하였던 파스퇴르는 “경외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했다. 그의 고백처럼 과학이 더욱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더 놀라운 창조자의 손길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 창조자의 성품과 능력(롬:1:20)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창조 세계에서 창조자를 제외해버려 어두워진 마음 때문이다(롬:1:20-23).

현대인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복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진화론이다. 세계사를 보면, 중세 이전에는 신학자의 의견이 절대적이었다. 교회가 타락한 다음 르네상스 이후에는 철학자의 시대였다. 이제는 철학자의 말도 별로 효력이 없다. 대학에서 철학과의 위상을 보면 그 영향력을 알 수 있다. 현재 최고의 권위는 과학자다. 그런데 위상이 높아진 과학자들이 자기 분수에 넘게 자기들의 영역 밖인 역사 문제에까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진화론이 바로 그런 영역이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는 거짓인 진화론에서 벗어난 성도들 특별히 신학자들을 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메일 : poifonwchoi@gmail.com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টে모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목회서신

윤리 실천 이전에 복음을 만나라



여승운 목사 (시카고 가나안장로교회)

지난 주중에는 한국 기독교 대표적 지성인중의 한사람인 손봉호 교수님의 "기독교가 동네 개처럼 되었다"라는 칼럼을 읽었다. 손 교수님의 날카로운 지적 한국 교회가 가슴 깊이 되새길 부분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한국 기독교의 쇠퇴에 대한 진단을 손 교수님은 이렇게 하였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의 실패를 한 마디로 말하면 윤리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

리가 흔히 복음의 수평적 혹은 수직적 관계에 대해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사회 혹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손 교수님의 진단은 한마디로 한국 교회의 윤리적 실패로 본 것이다. 25년전 한국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손 교수님인데 교수님 스스로 완전 실패라고 2년 전 어느 방송에 나와서 자평하신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대책이 무엇인가? 또 다시 앞으로의 25년을 윤리실천에 목을 매고

가야 하는 것일까? 이미 실패했던 데도 말이다. 기독교는 윤리가 우선이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손 교수님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른데 윤리실천이 없어서 기독교 도덕이 엉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기초 이해를 다시 해보아야 할 것 같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윤리는 반드시 세워지는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표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다. 성화의 판단을 외적인 모습에 근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화는 외적 성화가 있고 내적 성화가 있다. 외적 성화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다. 여기서 외적으로 행동이 바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적 성화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을 말한다. 즉 외적 성화의 모습은 바른 것 같으나 내면의 성화가 외적인 성화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다. 만약 내적인 성화까지 바르게 된다면 반드시 윤리가 세워지고 도덕이 세워질 것이다. 진단 잘못하면 "돌팔이" 소리 듣는다. 이제는 진단 정말 잘해야 한다. 복음에 관한 주변지식 정도로 어설프게 진단하면 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 되시

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확증하는 사람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이르는 유일한 중보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좋은 교훈으로만 받아 드리려는 태도가 유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과 지속적인 교제는 교회의 출발이요 예배의 출발이면서 동시에 윤리와 도덕의 출발이다.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Ph.D를 가지고도 어려운 일이다.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학문과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인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다. 배운 만큼 박식한 만큼 복음의 깊이를 안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복음의 은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온전한 이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 윤리와 도덕

이 무너지는 배경은 복음에 대한 기초 이해가 온전히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착각이 더욱 기독교를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매우 시급하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알자! 더욱 깊이 복음을 알자!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이면서 전부다. 복음 주변을 더 이상은 걸들지 말라. 복음의 핵심중심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렇게도 단순한 복음 앞에 영원하고도 참된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라. 또 다시 윤리실천을 현재 기독교의 대안으로 내놓는다면 정말 소망이 없다. 그러지 말자.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바울 서신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지 다시 발견해보라. 바울서신의 핵심 사상은 In Christ다.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심정으로 In Christ의 비밀을 알기를 간절히 갈망해본다.

인/터/뷰 필리핀 한센병 환자사역 김명환 선교사

"한센병 걸려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 서원

한센병(나병) 환자들이 동고동락하며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는 김명환 선교사. 김 선교사가 한센병 환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사역을 시작하게 된지도 벌써 24년이다. 소록도에서 10년 그리고 필리핀에서 14년째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다.

"육군 군복으로 13년간 사역하고 소록도에 청빙을 받아 부임했습니다.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와 동고동락 하면서 10년 동안 700여 명의 장례를 치르고, 1500대의 휠체어를 제공했습니다" 김 목사는 소록도는 고향이나



사랑으로 맘 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치유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 지속적인 돌봄 필요

마찬가지라며 한센병 환자와 생활하면서 사람 사는 것을 알았고, 선교를 배웠다고 회회했다. 거기다 한센병 환자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것 같아 한센병에 걸리더라도 끝까지 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그는 소록도에서 보내는 동안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12개의 개척교회를 세우고, 이후 한국에서 배운 소록도의 한센인 선교를 수출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떠났다고 한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김 목사는 필리핀 한센병 환자촌에서 살고 있다. 그 사이 동생의 아내인 제수는 견디지 못해 그곳을 떠났고, 부모님은 아들의 사역지에서 함께 있다가 화상을 당해 아버님을 떠나 보내야하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 "인간적으로 참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골짜기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할 뿐입니다. 한센병 환자는 저의 친구입니다. 친구가 아픈데 당연히 옆에서 위로하고 치료해줘야 하는 것이

냐가요?" 김 선교사는 한센병 사역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했다. "한센병 환자를 대하기가 여간 어렵기에 많은 이들이 그들을 외면한다"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다가가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럴 때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명환 선교사는 선교보고를 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방문하게 될 때 듣는 이야기가 "또 도움을

받으러 왔느냐"는 소리라며 "한센병 환자들이 생활하는 지역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교지를 돕고 후원해주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이니까요. 나사로는 배고픈 자였으며 현대가 있는 자였습니다. 한센병 환자들 역시 배고프고 현대가 있는 자들입니다. 한센병이 심한 자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김 선교사는 상대가 양호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직업학교를 세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다고 전하며 500여명을 취업시켰다고 말했다. 컴퓨터는 전문교사가 가르치며 주로 컴퓨터 수리를 비롯해 가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필리핀, 태국, 인도의 한센촌에서 지금까지 12곳에 교회를 개척했으며, 2013년까지 31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처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도 때로는 물질로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선교가 가능했다고 말하는 김명환 선교사. 그는 앞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돌보는 자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는 분들이 많아질길 바란다

▲선교지 주소: P.O. Box 179Q Plaza P.O. 1900 Cainta Rizal(Philipp)

(박준호 기자)

<7면에서 계속>

카이퍼가 헤라우트지에 명상목을 쓸 때는 주일 아침이었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카이퍼의 독특한 스타일로 감칠맛나게 글을 썼다. 그의 글은 화란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해외에서든지 호텔이나 산장에서나 주일 아침에는 어김없이 한두 편의 말씀 묵상자료를 썼다. 이런 작업은 그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고, 이런 묵상자료는 계속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카이퍼는 설교, 연설, 강연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글을 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카이퍼가 헤라우트에 투고한 논설들 중에는 화란교회를 개혁하는 방향 제시가 있다. 그는 교회 개혁을 위해서 화란 국가교회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개혁의 이유를 이론과 실재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1880년대 교회를 휩쓸고 간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해설을 썼고 이것이 다시 소책자로 발간되었고 교회 개혁의 당위성을 제공했다. 화란계 미국인 저자 반덴 벵(Vanden Berg)은 카이퍼의 헤라우트 저술을 논평하기를 "영적인 깊이, 지성적인 넓이, 단순, 명료함, 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타는 헌신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카이퍼는 기독교 분야의 언론 활동을 통해서 성경과 신앙고백으로 개혁주의적이고 정통주의적인 사람들을 고무, 위로, 격려하고 교육해나갔다. 카이퍼는 개혁교회 성도들을 교회개혁과 교회건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사수를 위해서 훈련시켰다. 카이퍼의 글들은 화란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남아공화국 등 화란어를 이해하는 신학생들은 카이퍼의 글들을 읽는 것이 열정적이었다. 카이퍼의 다방면에 걸친 글들은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고 그의 힘은 엄청났다. 카이퍼는 가히 초인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사상의 깊이, 그리고 칼빈주의 신학과 사상이 어떻게 미려하고 환상적인 문학적 표현으로 대중들을 파고 들었는지 짐작이 어려울 정도였다. 사실상 카이퍼가 화란자유대학교를 세울 때도, 교회개혁의 중지를 모을 때도 한결같이 헤라우트지를 도구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다. 정치나 정책 사상운동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카이퍼는 익히 알고 있었다.

카이퍼가 헤라우트지를 통해서 인본주의를 공격하고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자를 호되게 비판하면서 계몽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정지자들에게 도전했다. 그러나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좌파들은 카이퍼를 없애버리려고 좌파 언론들은 혈안이 되어있었다. 카이퍼는 자신의 목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전혀 요동함이 없이 끊임없이 글을 썼다. 카이퍼는 하나님 앞에서(Coram Deo)의 신앙을 가졌으므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카이퍼에게 위모가 있다면 독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헤라우트지를 읽고, 그에게 한없는 존경과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었다. 독자들은 신문을 자기 자신만 읽는 것이 아니라 친구나 이웃에게 돌려보면서 의견을 교환했으므로 실제 독자들은 신문부수의 세배 이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카이퍼는 탁월한 문장가로서의 재능에다, 화란어의 우수한 구사력, 환상적 어휘력 그리고 뛰어난 문구사용 능력을 가진 최고의 문필가였다. 그의 문체는 하도 다양해서, 상황과 역사, 그리고 주제와 독자의 형편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글을 썼다. (10면으로 계속)

Shepherd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축' (축) and '축' (축) logos, WASC accreditation, and program details like '오르티즈 박사 영성 강의' and '찰스 크래프트 박사 치유 강의'.

동부교계 게시판



담임목사 청빙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 콜럼비아에 있는 콜럼비아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39년전 설립된 PCUSA로 자격은 교단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하며 정규신학대학원(M. Div) 이상을 졸업한 영주권자(시민권자), 이중언어에 불변이 없으며 이민목회 7년 이상(부목사 포함). 제출서류는 한글이력서 1부(사진포함), PCUSA PIF(pcusa.org) 양식, 본인 및 가족 소개서(가족사진), 목회비전, 소견서 및 신앙고백서, 신학교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추천서 3명, 최근 6개월 설교 동영상 2편. 마감은 8월 11일.

▲문의: (704)491-8044 장영학 장로. 이메일 yhcchang@gmail.com

백두산 통일기도회 참가자 모집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장석진 목사)가 2014년 8.15를 맞아 남북통일을 위한 백두산 통일 기도회를 갖는다. 일시는 오는 8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모집인원은 40명(한국 국내 20명, 해외한인 디아스포라 20명). 경비는 1인당 1200달러(미국-한국 왕복표는 포함 안됨). 해외동포들에게는 소정의 경비가 지원된다. 신청마감은 7월 21일. 신청은 서기 송병기 목사(917-559-8877), 회계 박영진 장로(516-650-6332, 551-4552).

▲문의: (718)948-0339, 0292, 2039

퀸즈장로교회 단기선교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단기선교를 진행 중에 있다. 중국 A팀은 지난 3월 출발했으며 18일 귀국한다. 중국 B팀은 7월 14일 출발해 25일 귀환한다. 이어 케냐(7월18일-31일), 캄보디아(8월 13일-23일)가 이어진다. 선교지에 보낼 선물로 가정상비약, 비타민, 생필품, 옷, 학용품 등을 기증받고 있다.

▲문의: (718)886-4040

협력하면 성장... "형제의식 지켜 사랑하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분립예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정관일 목사) 뉴욕노회 분립예배가 지난 8일 오전 11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려 뉴욕과 뉴저지 노회로 분리됐다. 이로써 뉴욕노회 목사회원 29명, 뉴저지 노회 7명으로, 교회는 24교회와 7교회로 각각 소속됐다.

총회 지시에 따른 분립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총회 밤에 따라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뉴욕노회에서 분립되는 노회 명칭은 뉴저지 노회로 한다. △뉴저지노회 지역은 뉴저지 지역으로 한다.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1회까지는 원하는 노회로 갈 수 있다. △분립되는 뉴저지노회 회기는 뉴저지 노회 결정으로 한다. △뉴욕노회 현재 회계 재정은 현재 재정을 반반씩 분할한다.

회의는 정관일 총회장 사화로 회원점명/문종은 노회서기, 노회분리결과 보고/최동진 총회서기, 뉴욕노회회 회명/문종은 노회서기, 뉴저지 회원 회명/문종은 노회서기, 분립선교/정관일 총회장, 격려사/이규본 목사, 폐회선언, 축도/정관일 총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격려사는 말은 이규본 목사는 신 32:7절을 들어 "총회장님의 설교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분립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교회 일치와 성경책, 그리고 의사를 선물로 증정했다(아래사진).

회무처리에 앞서 드린 예배는 최동진 목사(총회서기)의 인도로 정관일 목사가 설교했다. 정관일 목사는 "협력으로 갈 것인가? 대립으로 갈 것인가?"(잠17: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뉴욕노회는 총회창설부터

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좋은 관계에서 분립되지만 반석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교회와 노회, 총회에 축복을 주셨듯이 서로 협력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뉴욕노회는 뉴저지노회에

"성령님 열매 맺고 싶어요" 퀸즈장로교회 전교인 여름수련회 성료



퀸즈장로교회 전교인 여름수련회에서 김성국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사흘간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가졌다. 강사는 본 교회 담임목사인 김성국 목사로 뉴저지 허드슨밸리 리조트에서 "성령님 열매 맺고 싶어요"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성국 목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 주일 설교를 포함, 총 9번의 집회에서 각각 설교했다. 또 매 설교 후에는 통성기도로 마쳤다. 또한 교인들 간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성국 목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순서 진행해 차질 없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있었던 총회 발전에 큰 일을 해온 모체 노회다. 뉴욕노회 분립예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자녀가 성장하면 결혼하고 분가는 것처럼 뉴욕노회가 분립된 것은 아쉽기도 하지만 성장했다는 의미에서 축하할 일이다. 총회도 결의한 대로 축하한다"며, "무슨 일이라도 평화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화평한 가운데 분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욕과 뉴저지는 지역상으로 따로 서는 것이 발전의 길이다. 기도와 연구 끝에 분립을 선택했을 것이다. 분립한 후에도 협력함으로 서로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관일 목사는 "형제의식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시라. 총회 역사 가운데 현재 가장 아픈 상처를 싸매고 있는 지금은 노회가 총회를 도와야 할 시기다. 특히 설립되는 뉴저지노회는 막내지만 큰 힘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배 기도는 공재남 목사(총회 총무), 축도는 김두해 목사가 했다.

한편 당일 오후 2시30분에 뉴저지개혁장로교회(담임 조문선 목사)에서 뉴저지노회 분립축하예배가 열렸다. (유원정 기자)

(9면에서 계속)

카이퍼는 평론, 명상록, 논설, 연설문, 강연문, 설교 등을 아주 적절하게 발표했다. 카이퍼는 일생동안 타이피스트의 도움 없이 그것을 직접 썼다. 카이퍼는 심지어 그 바쁜 수상직을 수행하면서도 헤라루

트지에 논설과 평론, 명상록을 끊임 없이 쏟아내었다. 카이퍼에게는 언론이 정치였고, 정치가 곧 언론이었다. 카이퍼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 교육, 사회를 그의 꿈과 비전대로 개혁해갔다.

(다음호에 계속)

(5면에서 계속)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타협하지 않았지만 무슬림들에게 사랑과 정직과 공활로 다가가게 되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 것을 제시해준다.

셋째로 다원적 패러다임The pluralist paradigm이다. 이는 앞의 다른 둘과는 매우 다르다. 다원주의적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John Hick이나 Hans Kung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고 믿는 종교적 신앙과 그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 혹은 신에게 간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성도들도, 대부분의 무슬림들도 수용하지 않는다.

무슬림들이 우리를 향한 시선은 굽지 않다. 우리가 그들을 보는 시선도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기억할 것은 극단주의적 테러리스트들이 절대 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이 불리일수록 그 극단적 이미지가 대부분의 무슬림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무슬림들을 두려워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없게 된다. 여기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순결함과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말리 나갈 필요도 없다. 우리 주변에 택시나 자동차 정비, 주유소, 많은 생활의 현장에서 무슬림을 만난다. 먼저 방금 웃고 상냥한 인사를 건네고 사랑의 제스처로 나아가야 하겠다. 비록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가 가기 싫은 니스웨로 남게 될 것이다.

라마단 기간에 선교사들과 성도들 그리고 무슬림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여는 좋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이노비가 유니온플라자 케어센터에서 공연을 가졌다.

이노비, 유니온케어양로원서 무료 콘서트

뉴욕늘기쁜교회 14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지난 1일 플래시에 위치한 유니온플라자 케어센터에서 무료 콘서트를 개최했다. 한인교와 다민족 어르신 100여명이 참석한 이 콘서트에는 피아니스트 김희진, 소프라노 오선영, 테너 조영준,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인, 비올리스트 허담 등의 실력과 음악가들이 어르신들이 즐기실 만한 유명가곡과 클래식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제임스&니콜조 파운

데이션과 공동주최로 이노비는 문화·예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위한 양질의 공연 등을 제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복지 비영리단체다.

이노비 공연은 무료 공연이며 7월에 모두 4회의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노비 행사 문의는 이메일 happiness@enob.org이나 전화 (212)239-4438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이노비)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갯세마니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성경강좌: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5:40 새벽기도회: 오전 5:45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성경강좌: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성경강좌: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뉴욕새사문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영아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성경강좌: 오후 8:00 금요성경강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성경강좌: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성경강좌: 오후 8:30 금요성경강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강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FM영어 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강좌: 오전 10:00 수요성경강좌: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뉴저지서당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강좌: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 성령강좌: 오후 8:30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45 수요성경강좌: 오후 8:30 금요성경강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동사목사: 박준열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성경강좌: 오후 8:45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성경강좌: 오후 8:30 수요성경강좌: 오후 9:00	에사라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1부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성경강좌: 오후 5:00 영아예배: 오후 1: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미아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성경강좌: 오후 8:30 금요성경강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월, 목, 금, 토, 일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성경강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8:00 주일4부예배: 오후 9: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LA최초 크리스천 종합문화행사로

24-26일 리틀도쿄, PPF 6회 환태평양 영화제



제6회 환태평양 기독교영화제(Pan Pacific Film Festival·이하 PPF)가 오는 7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LA 리틀도쿄지역 아라타니 재팬 아메리칸 컨벤션 앤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된다. '기독교계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환태평양 기독교영화제는 한인 문화사역단체 '글로벌 미디어&IT'(대표 권 안 선교사 이승종 목사, 이하 GMT) 주최로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이미 세계 10여 개국 이상에

서 100개가 넘는 작품들이 접수된 상태다. 영화제기간동안 총 32편의 감독적인 기독교영화가 무료로 상영되며, 8팀의 뮤지션 그룹의 공연, 그리고 40명 이상의 강사가 참여하는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을 비롯, 패션쇼, 라이브 아트, 30개 이상의 전시부스, 푸드 트럭 등 LA 최초의 크리스천 종합문화행사로 마련이 된다.

이번 영화제에는 크리스천 배경을 가진 스티븐 맥이비티(영화 '패션오브크라이스트' 프로듀서), 마크 조셀(영화 '레프트 비하인드' 제작자), 랄프 윌터(영화 '엑스맨' 제작자), 테드 베이어(무비가이드 창립자), 알렉스 무라쉬코(크리스천포스트) 등 영화계 유명 인사들도 참

석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영화의 거장 이장호 감독이 참석하며 이 감독이 제작한 '시선'이 영화제 기간 상영된다. 또한 헐리우드 관계자들이 강사로 나서 현재 활동 중인 기독교 영화인들과 미래의 영상 사역자를 꿈꾸는 차세대 영화인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10여개의 워크숍을 인도한다.

이번 영화제의 시상식은 첫날인 24일 오후 7시에 열리며 선교필름, 장편 및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상업용 필름, 교회 영상, 비디오 부분, 최고주연상, 사운드트랙 등 17개 부분의 작품이 선정되며, 약 1만 달러의 상금과 트로피 등이 함께 주어지게 된다.

자세한 문이는 (888)564-6890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한의학박사 등 총 14명 졸업

유인대 제35회 졸업 및 학위수여식 열려

캘리포니아 소재 한인대학 중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유인대학교(총장 앤드류김 박사)가 지난 21일 오전 11시 제35회 졸업 및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신학과와 비즈니스 경영학장인 트롱(Tu Anh Truong)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졸업 및 학위수여식에서 아멘 라흐 박사가 환영사를, 카슨 시의원 마이코 김슨이 졸업연설을, 휘창서 박사가 학교연혁을 소개한 후, 앤드류김 박사가 총장 메시지를 전했다.

졸업연설에서 마이코 시의원은 "캡틴 시와 카슨 시 등은 오랫동안 유인대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 나는 매우 흥분이 된다.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여러분들 앞에 섰기 때문이다. 여

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하고자 하던 계획을 중단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는 매우 밝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로운 첫날이다. 여러분은 우리의 커뮤니티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며, 여러분에게 부여된 일을 훌륭하게 감당해나갈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유인대학은 헨리유 박사에 의해 1981년 3월 1일 설립됐으며, 그해 9월 유인대학의 대학원 및 학부 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교육의 캘리포니아 주정부 허가를 받았다. 이듬해 10월에는 캘리포니아 국무원에서 침술직업 교육인증 과정의 승인을 받았다.

현재는 신학대학(BA, M.Div,

제6회 환태평양 영화제 포스터



베데스다대학교 부설 열린음악교육원 제2기 강좌가 6월28일부터 8주간 코스로 열리고 있다

그레이스선교회 제2기 열린음악교육원 개원

베데스다대학교 부설 그레이스선교회(대표 김승기 집사)가 제2기 열린음악교육원을 지난 28일 개강했다. 이번 2기 강좌는 가을학기예 개강예정이었으나, 1기 때 등록하지 못한 학생들의 요청이 쇄도해 여름학기부터 앞당겨 개강하게 됐다.

2기 열린음악교육원은 보컬, 기

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색소폰과 클라리넷, 바이올린, 플루트, 오토하프, 지휘 등의 과목을 8주간 코스로 열리게 되며, 소정 과정에 마친 후 미니콘서트를 갖게 된다.

▲문의: (714)683-1210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 아주사퍼시픽대 신학대학원 입학설명회**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 웰레스 박사) 신학대학원 입학설명회가 14일(월) 오후 6시 본교 LA 캠퍼스(3580 Wilshire Bl, #200)에서 개최된다.
▲문의: (626)857-2200, aher@apu.edu
- 월드미션대학교 입학설명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는 입학설명회를 14일(월) 오후 7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Room 1에서 갖는다.
▲문의: (213)388-1000
- 강명식 찬양집회**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강명식 찬양집회'를 16일(수) 오후 7시30분에 개최한다.
▲문의: (562)402-2919
- 예수치유와 건강 세미나**
오렌지카운티한인목사회(회장: 김영찬 목사/호사광선교회 대표)와 JAMA 주관으로 7월 14일(월) 부에나 파에 있는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예수 치유와 건강 세미나"가 열린다. 강사는 신경과, 뇌과 전문의이며 목회자인 배성호 목사.
▲문의: (213)598-5323

Ph.D), 경영대학(BA, MBA, Ph.D), 한의대학(BSAOM, MSAOM, Ph.D), D.Ac, DAOM) 등 3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한의학박사, 비즈니스경영학 석사, 비즈니스 경영학 학사 등 총 14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유인대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졸업생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본사방문

미주갈멜산기도원 담임 조성근 목사

“한국적 영성, 세대를 넘어 다음세대로 이어지길”

LA 한인타운 한복판인 8가와 카탈리나 코너에 미주갈멜산기도원을 설립하고 미주지역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조성근 목사가 7일 오후 본사를 방문했다.

“작은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뜨거운 기도로 LA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한다”고 입을 연 조 목사는 “주차 시설이 부족해서 안타깝다. 속히 좋은 장소를 찾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2년6개월 전에 갈멜산기도원을 설립하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매일 일주일씩 미주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조성근 목사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빠른 부흥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사역에 대한 마음은 더 뜨거워졌고 이 사역을 통해 나 자신이 겸손해 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나를 먼저 가꾸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기는 것 이전에 섬길 수 있는



자세를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국 안양과 강화에서 우리 기도원을 찾았던 분들이 미주 갈멜산을 찾아 주시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라고 그동안의 느낀 마음을 겸손히 표했다.

또한 조 목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숙식이나 그 외 편의 시설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어 미안함이 크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섬길 수 있는 방법 모색이 지금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며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다.

갈멜산기도원을 이곳 미주에 설립하게 된 동기는 단순하다. 개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잘 섬기고 그들의 신앙에 용기와 힘을 주고 등도 떠맡겨주어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픈 것이 조 목사의 마음이며, 미주갈멜산을 후원하고 있는 안양과 강화에 소재한 갈멜산금식기도원 모든 분들의 소망이다. 그러기에 조 목사는 “좀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원사역을 이해해주었으면 좋겠고 정말 미약하

지만 교회들이 견고히 서고 성도들이 행복해지도록 섬기는 기도원으로 잘 뿌리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미주 교계를 향한 바람도 표했다.

특히 그는 2세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한국적 영성이 세대를 넘어서 다음세대로 넘어가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조성근 목사는 근간에 미주를 방문할 때마다 시애틀세계선교교회, 베이커스필드한인장로교회와 지난주에는 동산교회(담임 한기형 목사)에서 집회를 인도했다. 개교회 집회를 인도하면서 더욱 넓게 성도들의 삶을 볼 수 있고 목회자들의 아픔도 공감할 수 있어 감사함으로 말씀을 전했다며, 이런 사역들을 통해 LA의 생활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

끝으로 조 목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뢰회복과 은혜로 인해 상처 나고 깨진 다양한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말씀과 하나님이 이유가 돼 주님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현대 크리스천들이 행여 본질을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다”며 하나님과의 회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갈멜산기도원은 매일 새벽기도(새벽 5시30분)와 낮 집회(오전 10시30분), 저녁 집회(오후 7시30분)가 이어지지만 주일에는 기도원을 오픈하지 않는다. 갈멜산기도원 문의전화는 (213)382-1450이며 www.galmelsan.or.kr 에서 자세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성자 기자)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8쿠바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11박 12일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체코 이태리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11박 12일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net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② 교회(기관) 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_____ 영문: _____
⑤ 사택 주소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_____@_____
⑧ Web Add.	http://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5대 범국민운동 캠페인' 벌인다

한국교회 20여 주요 교단 총회장 참여

한국교회와 이 땅의 화합과 발전, 평화통일을 위해 5대 범국민운동 캠페인을 벌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등 주요 교단장들은 1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녹색 한반도 통일화합나무 7000만 그루심기 범국민운동본부' 창립 및 5대 범국민운동 캠페인 선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안명환(예장 합동) 김동엽(예장 통합) 이신웅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김대현(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과 전용재(기감) 감독회장 등 20여 교단의 총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5대 범국민운동 캠페인은 녹색 한반도 통일화합나무 7000만 그루심기, 알코올·마약·도박·게임·성 등 5대 중독 예방, 출산 장려와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에너지 절약과 근검절약, 청소년 바로 세우기 등이다.

7000만 그루심기 캠페인은 1국민 2나무 심기 운동을 통해 이 땅에 7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교계는 먼저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별 운동본부를 조직해 1000만 그루 심기 운동을 벌인다. 추가로 통일부 및 산림청 등과 함께 범국민운동을 벌여 60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나선다. 중대형 교회들은 농어촌·미자립 교회를 헌금, 바자 등으로 후원하고 지역교회는 유류 부지과 수련회 장소 등을 제공하는 도·농 교회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5대 중독 예방 캠페인은 각종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5대 중독 예방에 건강증진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여론 조성 및 입법활동을 하고 지역교회

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명존중 캠페인을 통해서도 교회 내 유희시설을 활용해 비영리 어린이집을 늘리고 국내 입양을 권장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또 교회시설 중 비효율적 제품 교체, 주일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활 속에서 근검과 절약을 적극 실천할 방침이다. 상담·재활 아카데미 운영과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비전센터 설립 등을 통해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장헌일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번 캠페인이 대립과 갈등 등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와 우리 사회, 특히 한국교회에 평화와 화합,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기독교서 대책은 기독교 도덕적 수준 높여야'

예장 합동 '국가종교편향 대책 세미나' 개최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기독교 정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교회와 기독교인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총회장 안병환 목사)가 1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 본부에서 개최한 '국가종교편향 대책 세미나'에서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는 종교편향 논의에 앞서 한국교회가 도덕적 권위 회복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개혁주의 사회윤리와 한국장로교회의 책임'이란 주제로 발제한 손 교수는 정의와 부패적결,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개혁주의 신학자 칼뱅의 사상을 소개한 뒤, 이와 상반된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질타했다. 그는 "개혁주의 사상에 따르면) 세력이 커질수록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그러지 못해 세속화가 됐다"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와 언론의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 등 세속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줄여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어 "한국사회는 높은 자살률과 탈세율, 낮은 행복지수와 사회 투명성 지수 등 도덕적 후진국"이라며 기독교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은 그 사회 '지배 종교'가 책임져야 하는데, 한국사회의 실제적 지배종교는 기독교라고 할 수 있다"면서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는 개

혁주의 장로교가 사회의 도덕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의 정체성"이란 주제로 발표한 주대준 카이스트 교수는 청와대 경호차장 재직 시절 종교편향 논란에 휘말렸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경호차장으로 있으면서 종교편향을 보였다는 공격을 받았다"면서 "20년 전부터 청와대에서 신우회 활동을 했고 각종 비리를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각종 비리를 근절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타종교를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타 종교인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지"고 제안했다.

언론과 인터넷 여론의 반기독교 정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언론들의 종교차별적 보도행태와 기독교에 대한 인식 왜곡에 (대한) 대응"이란 주제로 발제한 이역주 한국교회언론장 대변인은 "절대 다수의 목회자와 장로가 잘 하고 있음에도 언론은 일부만 들어 동태처럼 한국교회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며 "불교나 천주교처럼 마스크 담당을 만들어 잘못된 사실은 적극으로 정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대안학교 고비용 지적

기독교대안학교들 "사실과 달라"

교육부가 '2014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안학교의 고비용 구조를 지적하자 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기대연)이 반박에 나섰다.

기대연은 최근 발표한 '교육부 현황조사에 대한 기대연의 입장'에서 "기독교대안학교는 공교육과 상생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학습부진 학생 등 공교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을 감당해 왔다"면서 "하지만 교육부는 대안학교 학비에 대해 '고비용'

고'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경제상품 같은 인식을 줘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안학교가 연평균 620만원의 고비용 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2011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를 제외하고 학생 1인당 교육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은 초등학교 637만원, 중학생 643만원, 고등학생 845만원"이라며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대안학교 교육비가 모든 경비를

포함해 620만원이라면 정부와 대안학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안학교 학부모들은 교육세를 내면서도 급식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등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지만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일반적 통례와 규제가 아닌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발표가 과장됐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번 발표가 '대안교육 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만큼 법

제화에 대비해 등록금 인하와 시설 개선 등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은 "300여개로 추정되는 대안학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독교 대안학교는 종교교육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선제적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며 "대안학교의 고비용 문제를 풀려면 학교 자율성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4회 세계성령봉사상 수상자 선정

국내부문 김승규 장로·국제부문 도이 류이치 목사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정인찬 목사)가 수여하는 세계성령봉사상(총재 소강석 목사)이 14회를 맞아 국제부문 수상자에 국내부문 김승규 장로, 국제부문 도이 류이치 목사를 선정했다.

제14회 수상자 실무를 담당한 세

계성령중앙협의회 이사장 안준배 목사는 "국내부문 수상자 김승규 장로는 국가정보원장 법무부장관을 역임해 공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정에 이바지 했다. 또 변호사로서 인간의 최우선 가치인 인권 신장과 기독교 진리 실천에 일생을 헌

신했다"고 말하고, 또 "국제부문 수상자 도이 류이치 목사는 한일기독교의원연맹 일본대표회장으로 일본 중의원 재직 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일본 정계에서 한국의 입장을 일본에서 적극 개진해 한일 양국의 화해를 이끄는 데 이바지했다. 일본 내 소수 종교인 기독교 목사로서 일본 정계에서 기독교 진리 실천에 일생을 기어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세계성령봉사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빌3:3)라는 성경말씀을 주제로 일생을 성령에 의지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에 봉사해 온 그리스도의 숨은 일꾼을 찾아내 전 인류의 귀감으로 삼고자 지난 1990년에 제정됐다.

세계성령봉사상 시상식은 7월 14일(월)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탈북자 18명 강제 복송 위기

남 오려다 中 공안에 붙잡혀 송환 땀 처형 면키 어려워

한국행을 희망하던 탈북자 1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복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탈북자강제복송반대국민연합(대표 이애란)은 "지난달 19일쯤 중국 엔지에서 8명, 투먼에서 3명 등 모두 1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모두 북·중 국경지역으로 이송됐다"며 "이들은 제삼국을 거쳐 남한으로 오려고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되면 처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연합은 또 "이 과정에서 50대 한국인도 체포됐다"며 "이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도 중국 공안이 15일째 강도 높은 심문을 하며 벌금을 내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은 북한 여러 지역에서 출발해 한국인과 조선족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0~30대 형제 2명은 먼저 탈북한 어머니가 남한에서 기다리고 있다. 남편 등 가족이 기다리는 30~40대 여성과 아기도 있고, 내 살인 남자아이 등 탈북 고아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애란 대표는 "같은 탈북자로서 마음이 아프다"며 "오늘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 문제를 논의해 이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한국행을 돕던 P선교사는 "탈북자도 헌법상 염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중국이 강제 복송하도록 방관하느냐"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 강제복송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 탑골공원 등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복송정책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세월호 찬바람' ...절반이 축소·취소

팻머스문화선교회, 2014년 여름 성경학교 설문조사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올여름 성경학교 사역의 절반가량이 축소 또는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팻머스 문화선교회(대표 선량욱)는 지난달 2~11일 전국 교회화교 사역자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세월호 참사의 영향을 받아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1%가 성경학교 규모를 지난해보다 축소해 준비하고 있다. 15%는 외부 캠프를 생각하다가 교회 자체 성경학교로 전환했고 8%는 성경학교 계획을 소폭 변경했다. 7%는 아예 성경학교를 취소했다.

현시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이 성경적인가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그래도 해야 한

다"는 답이 주를 이뤘다. "여름 성경학교를 축소하는 것보다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안전불감증은 사라져야 하지만 안전사고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 "이럴 때일수록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팻머스 문화선교회는 안전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체크리스트 2종을 발표했다. 행사 진행 전 체크리스트에는 '대피로와 출입구 상황을 확인했는가' '시설 내 소방시설은 완벽해 있는가' '시설별 안전

담당 선생님을 지정했는가' '행사장 근처의 병원 위치와 연락처를 파악했는가' 등을 담고 있다.

또 장거리를 이동할 때 체크리스트에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는가' '차량을 점검했는가' '차량승·하차 안전지도를 하는가' '벌미 등 특이한자는 없는가' 등이 들어 있다.

선량욱 대표는 "1인당 2000원 정도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단체보험 패키지를 활용하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팻머스 문화선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선교단체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벌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봉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벨렐교회</p> <p>담임목사: 진용태</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8:3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 오후 7:30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전덕영</p> <p>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회: 오후 7:00 E.M.예배: 오전 10:00 침례반영예: 오전 10시, (영): 오전 11시 유치: 유년부: 오전 10:00</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706 Wilmer Rd., Horsham, PA 01748</p>	<p>샬롯장로교회</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영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Tel: (704)529-0900 / 0998(렉스쿨)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새시온침례교회</p> <p>담임목사: 정용교</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360)458-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영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dc.org</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혜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앵커리지영리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찬양: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영리문교회</p> <p>담임목사: 하태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p> <p>Tel: (915)755-1490, 사역: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용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21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온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현</p> <p>주일새벽예배: 오전 11:00 주일영예배: 오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54)8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an, TX 754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11:00(EM) 영어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역수교회</p>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www.jl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p>	<p>큰무리교회</p> <p>담임목사: 나광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 7시(금, 토, 주일)</p> <p>Tel: (410)203-0516, 사역: (410)203-0512 3173 St. Charles Pl, Ellicott City, MD 21042</p>
<p>타코마 삼일교회</p> <p>담임목사: 정태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p> <p>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p>타코마새생명교회</p> <p>담임목사: 임규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월-토)</p> <p>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2 9702 E. B St, Tacoma, WA 9844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수명</p> <p>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템프장로교회</p> <p>담임목사: 윤정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수요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p> <p>www.kpcpac.com Tel: (480)726-018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p> <p>담임목사: 조진모</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침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선만</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영·한)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선교의 창 (11)

라마단(Ramadan)과 크리스천

만일 집과 사람을 통째로 잡아 삼키는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예 영안이 없어 무의식 가운데 있거나 인지한다 해도 "살마"하며 눈앞의 자기 일에 매여 땅 따먹기에 급급하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비극이고 한탄스러운 일이다. 속히 마음을 비우고 단합하여 차가울 재앙에 대비해야 한다. 쓰나미 앞에서는 너도나도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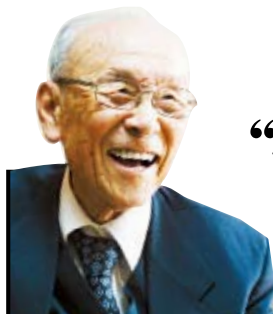
이슬람의 예전은 하나의 영적 쓰나미에 비교된다. 저들의 팽창성은 놀라울 뿐이다. 기독교 자료에 의하면 "지난 50년간 이슬

람이 '을 이끌어내다', '유도하다'라는 의미로, 'ramida', 'ar-ramad'에서 파생되었다. 이는 이슬람 달력으로 아홉 번째의 달을 가리키며 '타는 듯한 더위와 건조함'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라마단 기간은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Mahomet)가 천사 가브리엘(Gabriel)로부터 코란을 계시 받은 신성한 달 라마단의 금식은 푸아사(PUSA)라고 하며 모든 무슬림이 따르는 5대 의무 중 하나이다. 금식의 시기는 매년 각 나라의 이슬람 중앙서원에서 공지하는

을 하고 있다. 인간이 하루 만의 금식도 쉽지 않는데 그것도 한 달간이나 금식하며 일상을 영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생활 양태 하에서는 인간이 비인간화되기 쉽다. 이슬람교는 대체적으로 제정일치를 추구한다. 종교가 국가이고 문화이며 관습이다. 따라서 현재적 사람은 물론이고 여기서 태어난 후세들은 이 체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생애적으로 이슬람 문화에 체질화된 인간은 그 사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 자체를 타부시하며 결과적으로 맹종하게 된다. 라마단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볼 수

구원의 안목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이슬람교와 라마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일이다. 손자병법(孫子兵法)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란 말이 있다. 적을 모르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로 저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공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 이는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신(성령)으로 되기 때문이다. 신년 특별새벽기도를 하듯 교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로 주변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방지일 칼럼 (47) "본대로 들은 대로"

주신 이를 모르는 인권

숨을 쉬게 한다. 호흡할 수 있음이 산 증거다. 누가 주셨는가, 숨을 쉬게 적량의 산소의 배합을 주신 이가 계시다. 나로 호흡케 하신 이가 계시다. 내 체온을 적당하게 조절하시는 이가 계시다. 호흡은 하면서도 숨을 쉬면서도 누가 이 삶을 주심을 모르고 산다.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간다. 삶의 권세가 있기에 살아가는데 이를 모르고 산다. 배은망덕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은 분명해졌지만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인간 이하일까. 그러면서도 인권 운함은 인권도 모르는 자가 인권을 찾는다.

주신 인권을 짓밟으면서 인권을 찾는다 함은 인권을 주신 이를 항거함이라, 적대함이라, 태어나면서 받은 인권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주신 자를 항거하는 자는 사단의 사자로 전락하였음이라. 하나님 없이 인권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오늘 이런 망령된 사조가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정황이다. 이로써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진다 할 것이다. 이 일만이 남은 것이다. 하나님 없이 정치적으로 인권을 찾았다, 하나님 없이 사회를 평등하게 살게 한다, 심판을 재촉함이다. 여기에 순응하여 사회 정의를 외친다. 놀린 자들 해방시킨다, 가난한 자를 잘 살게 하겠다, 그런 망령된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이로써 불만만 조성하여 지구촌을 공포의 소용돌이로 만들었는데 거기 소위 교회도, 소위 신앙이라면서 동조하여 신앙의 정조까지 유린한 것이 현대의 사조인 듯하다. 이제는 깨달을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다. 받은 심판도 중하였건만 더 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까, 된 매를 맞아야 할 것인가.

주신 이를 모르는 인권 운함은 하나님 곧 주신 이를 적대하는 일이라, 그 중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다. 화급하게 인권을 주신 창조주께 돌아오도록 촉구할 일이다.

세례 요한같이 회개를 외칠 때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은 일이 급선무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역사할 때이다. 오늘 다양한 신학설들이 이 창조주를 항거하는 사단의 세력에 격려하는 꼴은 아닌가. 인권 운하면서 창조주를 항거 적대한 것이 드러났으니 어떻게 그 일을 반복하고 있을 것인가. 어떤 제도의 개혁 내지 혁명으로 소기의 떠드는 인권을 골고루 누리게 하였는가. 실제적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육을 부하게 살게 하였는가. 억압에 억압을 가하고 감압에 감압을 가하여 기본 인간의 삶의 밑바닥도 유린하고 있음이 그러도 분명해졌는데 이 취한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함은 실로 가련하다.

이제는 모든 교회는 활발하게 복음을 외쳐야 할 것이다. 회개를 부르짖어야 하겠다. 언제까지 미로에서 자신이 헤매며 많은 인간을, 많은 지성인들을, 많은 젊은이들을 그릇 인도하고 있겠는가. 이제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 회개를 외칠 때이다.

창조주를 망각한, 창조주를 항거 적대한 자들을 깨워야 할 것이다. 인권을 주신 창조주께 돌아오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을 태어날 때 받아가지고 나온 인간이 그 주신 창조주를 모른다. 망각한다, 적대한다, 항거한다, 그러면서도 정의 개혁 운함이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 창조주를 찾아야 한다. 창조주께 돌아와야 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습:1:3). 하나님께서는 언제 나를 떠나신 일이 없으시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주신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보니 그때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키 않으심을 깨달았다는 말씀이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만이 인간의 일이다. 옛 선지를 통하여 오늘 주의 역군들을 통하여 외치는 그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다. 돌아오라신다. 떠났던 자들로 돌아오라시라.

하나님 없이 인권 운동하는 받은 인권을 짓밟고 남의 인권을 찾아준다는 망령된 망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한다. 인권은 벌써 인간이 태어날 때 주신 인권이라 살 권리를 주신 이가 억압당함을 그리 간과하지 않으신다. 억울하게 당하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 그에게로 돌아가야 그 주신 창조주를 바로 알게 된다.

(1999년, 3권)

라마단에 최상의 선교는 역 라마단 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공화히 여기며 탄원하는 일이다. 새벽에 교회가 밀려오는 영적 쓰나미를 생각하며 공동으로 선교적 도전을 해야 한다. 저들의 교리는 타도의 대상이나 사람은 포용의 대상이다.

람은 235%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상대적으로 기독교는 47%일 뿐이다. 서유럽은 이미 이슬람의 영향권에 들어갔으며 한국도 저들의 사역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추세를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를 계수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저들의 라마단이 또 시작된 것이다. 이 기간은 영적 긴장감과 도전이 일년중 최고점에 해당된다. 현대 최고의 우리 교회들은 어떠한가? 저 멀리 밀려오는 태풍의 영적 먹구름을 보고 있는가? 교단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위기감과 연합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혹은 태풍무사 안일함 가운데 오직 내 교회 성장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있는지는 않는가? 이 치열한 영적 싸움판에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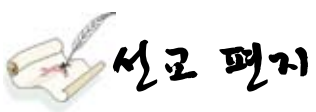
시간에 따라 지켜지는데 대체로 오전 6시-오후 6시까지이다. 이 라마단은 연중 한 달을 해가 뜨고 지기 전까지 음식은커녕 물조차도 마시지 않는다. 어떤 이는 짐까지도 삼키지 않기 위해 서 땅에 뱀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흡연, 성행위, 폭력, 화, 시기, 탐욕, 중상, 음행 등 반 종교적인 행위를 삼가 한다. 단, 건강상 이유나, 어린 아이들(일반적으로 7-8세가 기준)은 제외되며, 군인과 사막을 여행하고 있는 자 그리고 끼니를 안 챙겨 먹었다가 목숨이 왔다갔다할 만한 사람들도 제외된다. 생리 중인 여성도 제외되는데 나중에 빠진 기간만큼 보충해야 한다. 라마단의 주된 목적은 교도들에게 인내와 자제력을 가르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며 알라 신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게 하는 신앙행위이다. 저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면 하늘의 상급이 증가하고 일라로부터 복의 복을 받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슬람교와 라마단. 해마다 저들은 이 고통의 한 달을 통해 동질성(Unity)을 회복하며 공격적으로 대오를 맞춘다. 이에 대한 우리 크리스천의 자세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교리는 타도의 대상이나 사람은 포용의 대상이다. 우리는 헤안으로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영적 먹구름을 직시하며 역라마단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어두움의 세계에는 결코 자비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저들을 억압하고 부자유하게 한 모든 악한 세력과 궤은은 예수의 이름으로 타파하고 인간은 용납하며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존엄한 존재로서 주님의 사랑과

의 무슬림들을 판단하며 경계의 눈초리로 대하기보다는 주의 사랑으로 살피며 섬기는 일이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키는 사랑 이상 다른 방책이 없다. 사랑이다. 주님은 자기포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넷째는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막힌 답을 열고 주안에서 소통하며 이슬람에 대한 체계적이고 연합적 대책을 세워 집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무관심, 무대책, 무능력이라는 3무로 일관할 때 큰 불행은 야기할 수 밖에 없다. 다섯째는 가시적 교회보다 하나님의 킹덤을 의식하며 교회 안의 모든 에너지를 선교적으로 분출시켜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종말론적 시각에서 유람선이나 병원선 차원을 벗어나 전투함의 기능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우리의 세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관주를 취하라"(엡6:12-13a)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p>서부(CA)교회안내</p>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영길</p> <p>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30(영양)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p> <p>lafgusa@yahoo.com / www.lafgusa.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영락교회</p> <p>담임목사: 김경진</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20 주일3부예배: 오전 9:40 주일4부예배: 오전 11:1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2:00(영양) 주일7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15(토)</p> <p>www.naseng.org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나성제일교회</p> <p>담임목사: 김광삼</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토)</p> <p>Tel: (213)4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나침반교회</p> <p>담임목사: 민경엽</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하: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dordick@gmail.com</p>	<p>남가주리더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www.scrdm.com Tel: (213)215-8523, Fax: (213)977-1182 1536 S. Western Ave., L.A., CA 90016</p>	<p>남가주사망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10 주일3부예배: 오전 11:10 영양예배: 오전 11:45 (Holyway-영어예배) (KOC-한국어예배) 주일학교: 오후 1:10</p> <p>Tel: (714)777-7777, Fax: (714)777-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권영국</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714)719-2244, Fax: (714)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p>	<p>등문교회</p> <p>담임목사: 김상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8625, Fax: (213)483-8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gkc.org</p>	<p>중앙선교회</p> <p>담임목사: 박형은</p> <p>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도예배: 오전 9:30 3부 영어예배: 오전 11:00 4부 찬양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323)466-1234, Fax: (323)466-0818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 "세속에 묻혀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학교: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화 서비스),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St., FB L.A., CA 90033</p>
<p>드림교회</p> <p>담임목사: 이성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1부예배: 오전 9:30 영어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p> <p>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St., Pasadena, CA 91106</p>	<p>미주양광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1부: 오전 8:30 주일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성남부부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www.mjpa.org Tel: (310)381-2202, Fax: (310)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토-일) 새벽예배: 오전 6:00(토)</p> <p>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요</p> <p>주일예배1부: 오전 7:15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주일예배4부: 오후 1:00(영양) 산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생예배: 오후 1:00 대학원예배: 오후 7:30 영어예배: 오후 1:00(수요예배)</p> <p>Tel: (818)248-2871,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4 Irvine, CA 92612 www.bkc.org</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상덕</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브리지교회</p> <p>담임목사: 장세정</p> <p>주일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p> <p>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p>
<p>삼성장로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일)</p> <p>www.samsungchurch.org Tel: (562)939-8900, Fax: (562)939-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p>	<p>새천양교회</p> <p>담임목사: 변윤선</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www.newpraisechurch.org / ybsyon@gmail.com Tel: (714)829-0100, Call: (714)844-437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p>	<p>새생명선교회</p> <p>담임목사: 김만수</p> <p>영어1부예배: 오전 9:30 영어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7:00(일) 금요예배: 오후 7:00(일)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영어예배: 오전 9:00</p> <p>Tel: (818)95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714)745-991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안디옥장로교회</p> <p>담임목사: 지윤성</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교육부주일예배: 오전 11:00</p> <p>Tel: (818)248-2871, Fax: (818)248-0516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p>	<p>얼바인침례교회</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후 6:00(토)</p> <p>www.ircv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요셉선교회</p> <p>담임목사: 정성호</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8 L.A., CA 90020</p>	<p>일서크리스천교회</p> <p>담임목사: 엄규서</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전 11:00(영양)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영양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9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영어예배: 오전 9:00</p> <p>www.gracemc.org Tel: (714)446-6202,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6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ly.com / e-mail: pastor@cornestonely.com Tel: (310)530-4040 /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2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바울</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6부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ancecc.org Tel: 310-370-5500 /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아르헨티나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

먼저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벌써 2014년 하반기 첫날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남은 6개월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사명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선교 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플러신학교 졸업감사



2009년부터 플러신학교에서 선교회화박사(D.Min) 과정을 시작해서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학업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졸업논문이 올해 2월말에 통과되었고, 지난 6월 12-14일 학위수여식과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6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았고 중간에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힘주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와 격려로 응원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플러신

학교에서의 박사과정 공부는 지난 18년의 선교사역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공 받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현장과 학문을 균형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또 잘 섬길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디나목회신학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해의 사역이 잘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월 5-7일은 산티아고 델 테스페로 주 목회자들과 함께 "현대목회와 세계선교"에 대한 강의를, 그리고 5월 15-17일은 살따주(북부지역 1600km)에서는 "성경적 목회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에 대하여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 7월 3-6일은 살따주에서 "현대목회와 교회성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참석 한 15가정의 목회자 부부와 강사를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참석하신 목회자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깨닫고 용기와 힘을 얻어 목양지를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성경대학 지도자반

지도자반 프로그램이 작년 7월에 입학식을 갖고 8월에 시작하여 매월 한 번씩 집중 세미나로 진행 해왔습니다. 메르세데스(100km) 지역에서 세 교회가 연합하여 지난 일년간 진행해오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6월에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달 7월에는 2학년 개강식과 8월부터 또 일년간 수업을 갖게 됩니다. 35명의 참석자들이 지난 한해동안도 잘 참석했는데, 앞으로 일년동안 신실한 정치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위하여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부흥이 없는 신앙의 깊이가 없고 건강한 교회 부흥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각 지교회 지도자들이 덕을 세우며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집" 보육원

지난 20년 동안 한결 같은 사랑과 보살핌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세르히오가 전립선암을 초기에 발견하여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고 지금 계속 회복 중에 있습니다. 투병중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으며 또한 보육원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세르히오와 이사벨 원장 부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과 도우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을 찾게 되는 어린이들(생후 2개월 된 아이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삶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미래에 희망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사강습회

디나목회신학원에서 공부하는 알도 목사 교회에서 자발적인 교사강습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발적이라 함은 담임목사가 성경을 통하여 공부를 하고 스스로 교회 지도자들의 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교회지도자들과 교사들을 훈련시켜야함을 깨닫고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선교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현지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수동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번 경우는 현지 목회자가 시작하고 선교사는 도우미로 함께 멘토링을 하면서 협력했다는 의미입니다. 선교사로서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가 되지요. 32명의 교사들이 약 3개월 동안 열심히 세미나에 참석을 한 후 지난 6월1일 교사세미나 수료예배를 인도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수료증을 받으면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기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설립 25주년

저희가 협력하여 돕는 교회들 중 "모비메노 데 웨"교회가 지난 5월25일 설립 25주년 기념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의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격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날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내년 창립 기념일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



에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어 지역 사회에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가족단기선교

작년 7월에 가족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간단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짧은 겨울방학이지만 올해도 이 기간을 잘 이용하여 가족 단기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은 약 3200km의 거리를 주행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가고 또 현지인 목회자 가정과 교회를 방문하여 격려하며 말씀으로 견고해지도록 돕는 선교 여행입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을 나눌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님!

이제 2014년이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의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과 곧 사라져버릴 것에 너무 억매이지 않고, 가치 있는 일과 영원한 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동반자로 걸어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제목들:

- 1. 올해(2014년) 디나목회신학원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상반기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국 5개 지역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약 120가정의 목회자들이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올해 남은 6개월간 목회자 세미나 사역 가운데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2. 아직 시작하지 못한 아르헨티나 인디언 목회자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8월 중으로 인디언 추장과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계획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인디언 교회와 목회에 꼭 필요한 세미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채워지도록 기도해주시고.

3. "교회지도자를 위한 성경대학" 프로그램이 2년 차 시작됩니다. 참석하는 35명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말씀 연구에 최선을 다하여 현지인 목회자들을 도와 건강한 교회를 꾸꾸고 또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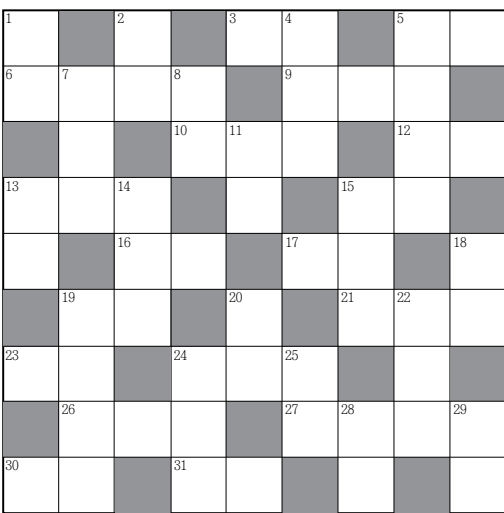
4. 저희 가정의 아이들(신애, 지애, 원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선교사 자녀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아르헨티나의 겨울, 7월을 시작하면서 박성흥-정명희(신애, 지애, 원진) 선교사 드림

이메일: carlospark@gmail.com

십자말 • Cross Word (44)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 3. 참혹한 실패(렘48:5).
5. 남의 나라로 몸을 피하여 울금(삼상29:3).
6. 찬송가 188장 OOOO 열리나...
9. 권세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막14:62).
10. 다시 갖게 한 사람(웃4:15).
12. 받들어 공경함(에1:20).
13. 로마 총독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눅23:1).
15. 흑흑한 것으로 남을 괴롭힘(히13:3).
16.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절대 굶(민33:27).
17. 연못 주변(느3:15).
19. 동기간 가운데서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 사람(창33:10).
21. 맷시 부리는데 쓰이는 물품(창33:6).
23. 침대(욥7:13).
24. 갑옷의 가슴에 대는 구리조각(사59:17).
26. 큰 일과 작은 일(삼상20:2).
27. 고모의 아들이나 딸.
30. 솟불을 담이두는 그릇(숙12:6).
31.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조미료. 감치에는 꼭 필요(민11:5).

<세로 푸는 열쇠>

- 1. 행동이 음란하고 방자함(단3:29).
2. 다른 것이 없는 마찬가지의 상태(사24:2).
4. 수령이나 승자가 가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사14:5).
5. 종작없이 스스로 잘난 체 함(시38:16).
7. 에브라임의 딸이다(대상7:24).
8. 생석회와 소석회의 총칭(신27:2).
11. 적을 기습하기 위하여 군사를 숨겨 둠(삿20:37).
13. 라헬의 시비, 야곱의 첩(창30:5).
14. 아완의 넷째 아들(대상1:7).
15. 에스와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요하난의 부친(스8:12).
18. 성결과 뉘림이(베후1:4).
19. 우리는 하나님의 OOOO 지음을 받았다(약3:9).
20. 참된 마음(렘3:10).
22. 앞날의 일(사48:3).
24. 유다왕 여고냐의 7아들 중 하나(대상3:18).
25.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타이름(말1:1).
28. 한평생 죽을 때까지(눅1:75).
29. 마을마다(에9:19).

십자말 정답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대표전화 (031)967-6754-5 군포시 금곡동 870-10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광명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침양회: 오후 9:00 Tel: (82)252-8491-5, Fax: (82)252-4834 500-170 경기도 고양시 북구 관양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83)268-2643-8553-4, Fax: (83)26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83)977-8383-9, Fax: (83)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인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3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3동 330-5, (134-830)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매일)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098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3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0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등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전 7:00 주일5부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신사동 137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침양회: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8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개포동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86-6579, 사택: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싱가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제기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침양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중랑구 성북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황순원 사모 (CMP사모사역원 원장)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9. 사모의 사명가꾸기 (5)

사모들은 열심히 남편의 사역에 내조하다 보면 자신의 모습은 돌볼 여유조차 없게 됩니다. 더욱이 이민목회의 사정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성도들의 정착문제입니다. 정착되어 한식구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진땀을 흘리는데 어쩌다 안정이 되었다고 안심하다보면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생깁니다. 이상하게도 한사람이 떠나면 콩고물 묻히듯 함께 우무무 떠남니다. 이런 일들 앞에 사모들은 아연 질색하게 됩니다. 예배 후에 있을 점심식사준비, 예배시간 동안 해야 하는 베이비시터, 이 모든 것들은 사모의 몫이 됩니다. 말씀은 듣기는커녕 정신없이 일에 쫓겨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과감치가 됩니다.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또 다음 주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처음엔 사명에 불타올라 어떤 상황도 기쁨으로 견디어 낼 수 있었습니니다.

사모에게 시급한 사명감의 회복은 곧 복음의 회복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말씀의 칼로 쪼갬 받아야

이렇게 헌신적으로 진땀을 빼고 나도 좋은 소리는커녕 사모 때문에 시험에 들어 이라크처럼 말들이 많아집니다. 남편이라도 사모의 사정을 이해하여 그런대로 위로해 주신다면 사모들은 버티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때문에 이제 목회 못하겠다" 하는 불평이라도 나오면 그때는 정말 사모들의 마음은 "다 때려치우고 싶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사모들의 기질 따라 나타나는 증세는 천차만별입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다가 심지어는 자살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사모들이 여기저기에서 호소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모들을 위해 곳곳에서 위로의 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도 사모들을 위한 관심이 늘어나 사모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행사가 그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단회적인 행사로 지나가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사모들을 위한 사명을 가꾸어 주는 행사가 절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남편의 입을 통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말씀에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모들이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비판하는 자세로 지적하기 바쁜 사모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남편의 행동과 전해지는 말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남편목사들도 사모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목사 자신이 지키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키면서 외치는 목사들의 설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사모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해지지만 하면 그 역사가 일어

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모들의 잘못된 인식이 때로는 말씀의 운동력을 가로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먼저 바로 알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뒤에서 기도로 밀어드려야 합니다. 어떤 판단과 비판도 금물입니다. 사단은 주일아침에 목사부부를 공격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모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목사의 속을 후벼 판니다. 목사의 허물과 약점으로 말씀의 능력을 앗아가게 합니다. 바로 이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 있는 말씀을 붙잡고 담담하게 강단에서 외칠 수 있는 남편이 되도록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사모들이 먼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말씀의 칼이 닿아 찢어 쪼개임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네 가지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감정도 포함됩니다. 골수같은 쪼갤 수 없는 부분까지도 포함됩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습관도, 버릇도,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오면서 종교생활에는 능숙하지만 떨어지지 않는 죄성, 껌딱지같이 붙어서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는 기질적인 성격들, 그러면서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유전 받은 것이니까 하면서 매우 관대하게 넘어가곤 하던 못된 성품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칼에 찢어 쪼개임을 받아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것을 이용하여 도전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심판주 앞에 드러나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말입니다.

히4:13에 모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실 하나님의 눈앞에 발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씨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상대방의 목

을 꼭 쥐고 숨도 쉴 수 없어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하지 못하여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가죽을 벗기는 모습을 말합니다. 셋째는 죄수들이 집행장으로 끌려갈 때 부끄러워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죄수의 목에 시퍼런 날이 있는 칼을 대고 있으므로 더 이상 머리를 숙일 수 없도록 하는 광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조차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시로 성령의 검으로 찢어 쪼개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무디어진 사명감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명은 사모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은 일도 사명감이 뜨거울 땐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사모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면서 또한 요령과 지혜가 생깁니다. 능숙해지는 것은 유익하겠지만 순수성은 결핍이 되지요. 그러기에 예배소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처음 사랑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철저히 찾기 위해 애쓰는 사모,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힘을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예민해 질수록 복음의 순수성이 강하게 사모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밀려오는 사모가 해야 할 일들은 의외로 복음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무거운 짐이 되어 온갖 상처로 아무 힘도 의욕도 없는 실패자로 전락하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목회자의 자녀들에게는 사모의 길을 철저히 반대하는 현상이 나오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의 회복은 곧 복음의 회복입니다. 사모들에게 있어서 소홀히 여겨지기 쉬운 복음의 회복이야말로 시급한 것이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신앙의 거침들(눅8:14)찬388장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나듯 참 신앙은 반드시 자라야 만합니다. 성장과정에 여러 문제를 만나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천국비유에서처럼 바른 성장을 위해 본분이 지적한대로 세 가지 거침들을 치워야 합니다. 첫째 거침들은 이성의 열려입니다. 거룩한 근심은 필요하지만 세상 염려는 우리를 불신앙으로 떨어뜨립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믿음으로 주께 아뢰어야 합니다(빌4:6-7). 다

음 거침들은 재리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곧 부하려는 마음은 일단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은 필요하되 그 돈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만을 섬길 때 신앙이 바로 자랍니다. 일락이 세 번째 거침들입니다. 여가선용은 필요하지만 향락에 빠지면 영적성장을 제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바른 성장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방법(눅9:24)찬456장

본문은 온전한 구원에 관해 가르칩니다. 첫째, 본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돼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한 신자의 신앙은 주석에서 죄 사함과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자아부인, 자기 십자가 집 그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24). 둘째,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하

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고, 얻으려하면 잃는다고 풀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자기 모든 것의 원천 곧, 자기 생명 곧, 자기 영혼을 가리킵니다. 셋째,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함은 목숨을 주를 위해 드림으로 시작하는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 산 제물로 드릴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은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수 첫 아들(눅2:7)찬455장

본문에서 누가는 왜 그리스도를 첫 아들이라 불렀습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사람으로 태어나셨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누가는 첫 아들이란 말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음을 알리면서 대속물로 구약 출애굽 시 초태생의 죽음을 환기시켰습니다. 구원의 초태생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는 친히 유일절 어린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초태생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초태생이 됐

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명, 칭의, 영화로 나아가는 구원이 만이들을 본받게 하려함이라고 증거했습니다(롬8:29). 진정 그리스도만이 첫째부활 열매가 되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도 그 첫 열매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점차 그리스도의 제로 때에 일어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유일한 근거가 됐습니다. 만이들을 본받아 그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목 세례요한의 메시지(눅3:1-17)찬208장

본문은 세례요한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 일의 모든 주도권은 말씀하시는 분에게 있습니다(2). 종들은 그의 말씀이 임할 때 그의 사역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요한에게 개별적으로 임함은 모든 사역자의 공통된 경험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소명과는 구분되는 사명을 위한 소명이었습니니다. 그 소명으로 할 일의 방향이 결정되고 총정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알려집니다. 말씀의 임함은 성

령의 임함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여 그 세계를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증거함으로 메시야의 오는 길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8). 그래야만 함당한 열매 곧 생활의 변화에까지 이릅니다. 이는 반성이 아니고 근본변화에서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금 그리스도인의 은혜(눅1:26-38)찬40장

본문은 은혜에 관해 무슨 진리를 가르칩니까? 첫째, 은혜(8)란 하나님의 선물과 호의로서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중심은 죄 사함이고 다음이 사명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은 회개와 믿음을 가져 거듭나게 하기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합니다. 그리고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이루기 위한 은혜입니다. 둘째, 점진적으로 나타난 은혜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하신 그 언약은 다윗에게서

더 구체적이고 점진적 실체로 나타났습니다(32).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언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민족적 왕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말한 것입니다. 셋째, 말씀으로 성취되는 은혜입니다(37).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되고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밖에 없습니다.

토 사가라가 받은 은혜(눅1:67-80)찬455장

불신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된 사가라가 받은 계시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구속이었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처럼 그는 구약에 나온 구속에 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많은 상징과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됨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체험을 했습니다. 혀가 풀리면서 그리스도를 찬송했습니다(64). 성실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75)는 사가라의 깨달음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언약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인 속량으로 성취되는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고 요한이 그를 증거하는 자로 일할 것을 예언합니다. 초점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를 영원히 섬기는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이것이 성결과 의와 평강, 공의와 사랑의 입맞춤입니다(시2). 사가라를 통해 보여진 구원계시를 따라갑시다.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1 2014 기도성회

-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 2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 10일 ~ 12일 침파중앙교회(김형우목사)
- 13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 12일 ~ 15일 우리들교회(김호경목사)
-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

-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3

- 8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4일 성일교회(원용식목사)
- 17일 ~ 19일 발안 사랑의교회(서기영목사)
-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욱목사)
-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4

- 3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채플
- 7일 ~ 9일 목동감리교회(최한규목사)
-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20일 ~ 23일 신생중앙교회(김희목사)
-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

-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2일 ~ 4일 새마을 성회(최민하목사)
-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 25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25일 ~ 28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6

- 9일 ~ 11일 명수대학교(김강덕목사)
- 15일 주흥교회(최성은목사)
-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26일 ~ 29일 LA 니성동신교회(한기형목사)

7

-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8일 25일 드림교회(김여호수목사)
-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

-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5일 평화의동산기도원(피중진목사)
-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 18일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31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9

-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3일 ~ 16일 밀라미시야 KL중앙교회(이종일목사)
- 21일 ~ 23일 오병이교회(김형재목사)
-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1 2013 기도성회

-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 1일 ~ 3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 3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 4일 ~ 5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 6일 ~ 8일 한광교회(차은일목사)
- 11일 ~ 13일 침파중앙교회(김형우목사)
- 13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7일 ~ 2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27일 ~ 30일 과천교회(주천신목사)
- 11월 ~ 13일 침파중앙교회(김형우목사)

2

- 2일 햇빛교회(임숙희목사)
- 2일 영원교회(리승철목사)
- 4일 ~ 7일 GST 30th 신학생훈련
-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4일 ~ 23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24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25일 ~ 27일 화평교회(이재욱목사)

3

- 3일 ~ 6일 창일교회(박여호수목사)
- 10일 순복음삼마교회(이일성목사)
-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4일 ~ 23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24일 ~ 26일 산남교회(김봉현목사)
- 31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4

- 7일 ~ 9일 월평동신교회(조은일목사)
- 11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채플
- 15일 ~ 1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8일 ~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5

- 3일 과천교회(주천신목사)
- 3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 6일 광명순복음교회(하용길목사)
-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27일 ~ 30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6

- 3일 ~ 5일 예우리교회(류병희목사)
-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3일 ~ 2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24일 ~ 26일 개나리교회(김익철목사)
-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7

- 1일 ~ 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 5일 인천 대은교회(최영구목사)
- 15일 ~ 1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8일 ~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29일 ~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8

-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2일 산곡기도원(한기재목사)
- 4일 천문교회(강대석목사)
- 5일 ~ 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6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 12일 ~ 15일 GST 31th 신학생 여름훈련
-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

- 1일 LA 미주 평화교회(김은목목사)
- 2일 ~ 1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8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29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30일 새원교회(이정수목사)

10

- 1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채플
- 1일 ~ 2일 새원교회(이정수목사)
- 5일 햇빛교회(임숙희목사)
- 7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3일 ~ 16일 남서중앙교회(여천근목사)

11

- 17일 ~ 2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20일 LA 미주 베이커스필드교회(지동근목사)
-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27일 ~ 29일 동양교회(김중영목사)

12

- 4일 ~ 6일 일성교회(원성은목사)
- 10일 창대교회(최용도목사)
-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8일 ~ 20일 대전 성남교회(정민영목사)
- 24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25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2

- 1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 2일 ~ 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15일 ~ 1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22일 인천가나안교회(정영목사)
- 23일 ~ 2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29일 신학생 철야 송년의 밤(GST)
- 30일 ~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이번 뉴스는 먼저 미얀마와 미얀마개혁장로교신학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는 6월 17일 캄보디아장로교신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다음 날 미얀마 양곤으로 왔습니다. 제가 봉사할 신학교는 미얀마개혁장로교신학교(Myanmar Reformed Presbyterian School of Theology)입니다. 먼저 미얀마 나라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미얀마라는 나라

미얀마는 인구 6천만인 넘는 135개 종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 구성된 일종의 연방 국가이다. 금년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아직 최종발표는 나지 않았다. 50년대와 60년대는 한국보다 더 발전한 나라로, 한국이 축구도 미얀마(구 버마)에게 지는 경우가 많았다. 60년대 초 유엔사무총장은 미얀마 사람 우탄트로, 독실한 불교신자인 그는 세계불교를 연합시키는 일을 했다.

가지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다. 불안한 연방 국가다. 다양한 인종을 어떻게 통일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아웅산 수지가 내년도 대통령으로 출마하도록 하기 위하여 야당은 서명운동을 전개하지만 어려울 것

55만명 중에 32.7%인 약 17만 명의 학생들만 이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청년들 중에 신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미얀마개혁장로교신학교의 현재 학생 수는 30명이다. 이 나라는 선교의 자유가 제한됐



가면 폭력을 당하는 일이 많다. 무슬림을 억압하는 나라라고. 정부는 이슬람을 억제하기 위하여 여자들은 다른 종교의 남자와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그런데 성탄절에 선물을 주지 못하게 하고 전도지 배포도 금지하는 법안이 사정되고 있다. 그래서 서방의 인권단체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난하자 강경 불교지도자들은 그러면 왜 이슬람 국가가 무슬림 여자들이 다른 종교의 남자와 결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시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슬람 억제정책은 기독교 선교도 아주 어렵게 하고 있다. 작년 미국무성은 미얀마를 종교의 자유가 아주 없는 8개국 중의 하나로 분류했다. 일부 교회들은 주민들의 반대로 교회당 건물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에서 모인다. 정식으로 교회 허가를 받으려면 10년간의 교회실적을 요구한다. 캄보디아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설교하면 위법이 된다.

미얀마 기독교

미얀마는 기독교 인구가 5%로 동남아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다. 1813년에 미국인 침례교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 처



그는 불교만이 세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미얀마는 풍부한 자원과 인구로 가능성이 많은 나라다. 작년에 부분 개방을 하여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지만 완전 개방만 되면 아시아에서 마지막 투자국가 될 것이다.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로 호텔과 밥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유감스런 정치문화

그러나 60년대 초기부터 군부가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하였고, 80년대는 군부통치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수난을 겪은 나라다. 88년도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자 5년 동안 대학문을 닫았다. 지금도 대학은 "사방에" 흩어져 있다. 우리에게도 아웅산 폭파사건으로 인연이 있는 나라다. 이 나라 주 종족은 버마족이고, 많은 소수 종족들이 있는데, 일부 종족은 독립하려고 강력한 군대를

으로 전망된다. 가족 중 외국인민권을 가진 자는 대통령일 못되도록 했는데, 최근 뉴스는 이 법을 국회가 풀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25%는 군인들이다. 동남아 소승불교 국가인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다 군사문화의 나라인지라 문명정부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본다.

미얀마 개혁장로교신학교 (MRPST-Myanmar Reformed Presbyterian School of Theology)

미얀마개혁장로교신학교는 2007년에 개혁주의를 강조하는 몇몇 한국교회 목회자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시작됐다. 미얀마의 주 종족인 버마족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 입학자격이 주어질 수 학능력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입학할 수 있다. 금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선교가 효과적이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유아교육과 신학을 연구 중이다. 내년에는 오픈할 영어와 미얀마어로 신대원(M.Div) 과정을 준비 중이다. 이 학교의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현재 24개의 교회가 개척됐다. 지난 28일에는 개척교회 연합으로 29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다. 필자는 현재 개혁주의 신학과 영어 강의를 시작했다.

이슬람을 정부가 억제하는 유일한 나라

이 나라는 이슬람을 공식적으로 억제하는 불교나라다. 서북부에 거주하는 약80만의 로힝가 무슬림들은 국적이 없으며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 수년전 과거 불교도들이 이들을 공격, 두 종교 간의 갈등은 국제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미얀마 청년들이 말레이시아에

움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그는 7년 만에 교인 하나를 얻자 미얀마에서 교인 하나 얻는 것은 호랑이 입에서 이빨을 빼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탄탄했다. 이 나라 신자는 주종족인 미얀마인들이 아니라 소수 부족들이다. 친족 90%는 기독교인이며 대부분의 교회는 침례교회다. 저드슨 이후 미국 침례교 선교사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쳤다. 이 나라 연합신학교인 미얀마신학원(속칭 MIT)은 금년부터 Ph. D학위를 주는데 너무 자유주의 신학이다. 한국의 신학교에 미얀마 신학생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고 돌아갔는데, 주로 친족 출신들로, 불행하게도 헌신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기보다는 작은 신학교(실제로 성경학원 수준도 못됨)를 시작하여 양곤에는 친족들이 세운 신학교가 무려 40개나 된다고 한다. 대부분 모금용이라고 알려졌다.

지금 세계는...

시리아 속보

시리아 사태는 갈수록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 뿐이다. 식량이 없어 20%는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150만 명은 이민자로, 240만 명은 피난민으로 다른 나라로 떠나 세계에서 난민을 가장 만든 나라가 됐다. 적령학생 50%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으며 4천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13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아시아에서 여성 성폭력이 많은 이유

지금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매일 일어나고 있다. 이유 중의 하나는 화장실 없는 인구가 25억이나 된다고 얼마전 이코노미스트지가 밝혔다. 특히 인도가 많은데, 이유는 여자들이 아침과 저녁 어두울 때 불을 보는데, 그 때 남자들이 기다렸다가 성폭행을 한다고 한다. 캄보디아도 인구의 1/3는 화장실 없이 생활한다. 그러나 스마트 폰은 다 있다.

사우디 청년들의 불만

영국의 문화인류학자 Pascal Menoret가 저서 "Joyriding in Riyadh: Oil, Urbanism, and Road Revolt in Saudi Arabia"(Cambridge University Press)를 썼다. 사우디 청년들이 불만을 표출하지 못해 축구장에서 리야드에서 자전거를 맘껏 달리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칼리프 이슬람 공화국 건설을 선포한 ISIL

지금 이라크는 수니파의 과격 원리주의 단체인 ISIL(이라크와 레반트 이슬람 국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는 수니 무장단체)는 이라크의 일부 지방을 점령하고, 지난주에는 칼리프 이슬람 국가 건설을 선포했는데, 시리아 정부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칼리프란 무하마드의 후계자로서 전 이슬람 세계를 컨트롤하는 정치지도자, 종교지도자, 군사지도자로, 50여개 이슬람 국가에서 한 사람뿐이다. 지금은 칼리프가 없다. 각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 칼리프를 세우려고 경쟁하기 때문이다. 이 무장 그룹은 이라크를 강력한 칼리프의 이슬람 공화국으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라크 사태: 세계대전의 촉매제?

1914년 6월28일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날이다.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왕자가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것이 1차 대전의 직접원인이 된다. 이것을 계기로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투르크, 독일, 이탈리아가 한패가 되어 영국, 프랑스, 미국의 연합국과 전쟁을 벌인다. 전자의 세 나라는 군사주의, 배타적 공격적 민족주의로 이념 무장이 됐다. 오스만투르크(현재의 터키)는 기독교 국가인 알미니아 150만 명을 학살한 나라이고 독일은 독재자 카이저가 기술어가는 "대영제국"을 침몰시키고자 하는 야욕을 품었다. 카이저는 독재자, 민족주의, 군국주의의 대명사이다. 당시 일본이 카이저의 독일을 열심히 모방했다. 당시 보스턴의 한 설교자는 "만약 카이저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지옥의 마귀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혹평했다. 지난 28일 아침 미국 CNN 대담방송에서 이라크 사태가 자칫하면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미국의 한 국제정치학자가 우려했다. 이라크 사태를 결국 국제사회가 그냥 두지 않고 영향력 행사를 위하여 파워게임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 사태로 이미 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는데, 그러나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기독교 신자들이다. 무장 그룹들은 시아파 사람들과 이라크 군인들과 공무원들을 잔인하게 살육하고 있다. 최근 기독교인 살해와 박해는 이라크뿐만 아니라 2주 전 나이지리아에서도 보고하람이 교회를 파괴하고 수십명의 신자를 죽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 한인교회 주소록 발간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15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 료 광 고 안 내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15.5 × 2.8cm		\$250.00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 료 리 스 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세요.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